夕刊

朝鮮日報

本紙特刊並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善

發行所 朝鮮日報社

日印會商終幕

最終交涉事實上成功

支離滅裂四個月만에 物物交換制度基調의 新通商關係遂成立

【電通델리五日發】 日印通商協定本會議는五日正午(日本時間午後三時半)부터開催되여三個月有餘에亘하야協議된全部事項이附議된바 日印兩國代表間의意見이서로一致되야 此를可決하고玆에日本通商史上에特筆할日印交涉은完全히成立되엿다

【聯合델리五日發至急報】 日印會商의最終本會議는五日日印代表部全員出席下에商務省會議室에서開會하바澤田『뽀아』兩主席이이러나前後四個月에亘한會商의經過를確認한바日印新通商條約이事實上妥에成功하다

最終本會議經過

起草委員會設置、閉會

【聯合델리五日發】 日印兩國間의經濟國交狀態를打開할目的으로去九月下旬심라에서開始되엿든日印會商은前後四個月에亘하야折衝한結果物物交換制度와綿出統制를基調로한新經濟關係確立에成功하고兩國의通商貿易史上에一新紀元을劃하기로되엿는데迂餘曲折을經한交涉의成果를確認하는最終本會議는五日正午三時商務省會議室에서開會되엿다 日本代表部로부터서는澤田首席代表寺尾、三宅兩代表以下隨員一同 印度側으로부터서는뽀아商務長官노이스勞働長官等兩代表以下旅行中인르사이政務長官을除한全員이出席하엿다 代表隨員의顔面에는緊張한가운데도喜色이滿滿하야례붙을距하고無方이一列로着席하자 會商의主人公뽀아商務長官이이러나簡單하게開會辭를述하고다음에澤田代表가이러나新通商條約에包含할事項을承認한原稿를半演說口調로明確한英語로朗讀하자 뽀아長官이再次이러나 右內容에異議업다는旨를答하엿다 그리고新條約을起草키爲하야起草委員會를設置하기로決하고 六月부터起草하기를始着하는데 意見이一致되엿다 그리고日、印兩國代表는서로握手를交하야 歷史的會議는和氣譪譪裡에遂히終了되엿다 때는바로午後一時二十五分이엿다

正式調印

二月中倫敦에서

【東通델리五日發】 昨年九月二十五日開會以來三個月半을關하야幾多의波瀾曲折을經한日印會商도玆에日印代表部間에主要한問題는完全한意見이一致되야今後에는新條約의起草에着手케되바 右起草는可及的迅速히着手되여뽀아印度首席代表가칼캇타로부터델리로歸하기까지는大體條文을完成하야假調印으로 澤田、「뽀아」兩代表의私的會見에잇서서의假調印은結局十四日頃에實現되리라고觀測된다 假調印을終了한後에條約文은倫敦으로옴겨 二月中에『싸이먼』英外相과松平大使와의間에正式調印하야玆에日印新通商協定이成立될터인데條約의效力은假調印과同時에發生케되엿다

콤뮤니케의內容

【聯合델리五日發】 日印會商의事實的大團圓을劃하는五日午後本會議散會後 다음과가튼콤뮤니케가公表되엿다

△澤田節藏公使閣下는日印兩國間의通商關係에影響잇는一切의重要懸案에對하야日印兩代表部間에意見이一致가速成되엿다는旨를述하엿다 以上諸懸案은左의諸項을包含한것이다

▲第一、日印兩國의商品에對하야最惠國待遇를與할것

▲第二、印度로輸入할日本綿製品에適用할最高關稅

▲第三、右綿製品에適用할割當量及此와日本의原綿購入과의關係

▲第四、將來의爲替變動影響에對應키爲하야取할方策

▲第五、日印兩國의通商上利益을害하는것이라고認定할만한關稅變更에關하야相互討議키爲하야採用할方法과協定締結實施

澤田公使閣下는此等諸問題에關한見解의一致에對하야氏가抱懷한滿足을開陳하엿다 印度代表部代表씨조셉뽀아閣下는右澤田閣下의聲明에對하야同意를表明하엿슴으로澤田閣下는述하여曰 只今本國政府로부터接受한情報에依하면 日本紡績聯合會는一月四日大阪에서開催한委員會에서 來一月八日로써印度原棉購買停止에關한決議를撤回하기로決定하엿다 다음에또아래와가튼 右決議撤回日부터 印度는日本綿絲布에對한關稅를모도協定된稅率에依하야削減할것과 爾今으로此種商品의輸入은兩代表가協定한條文에從할것을確言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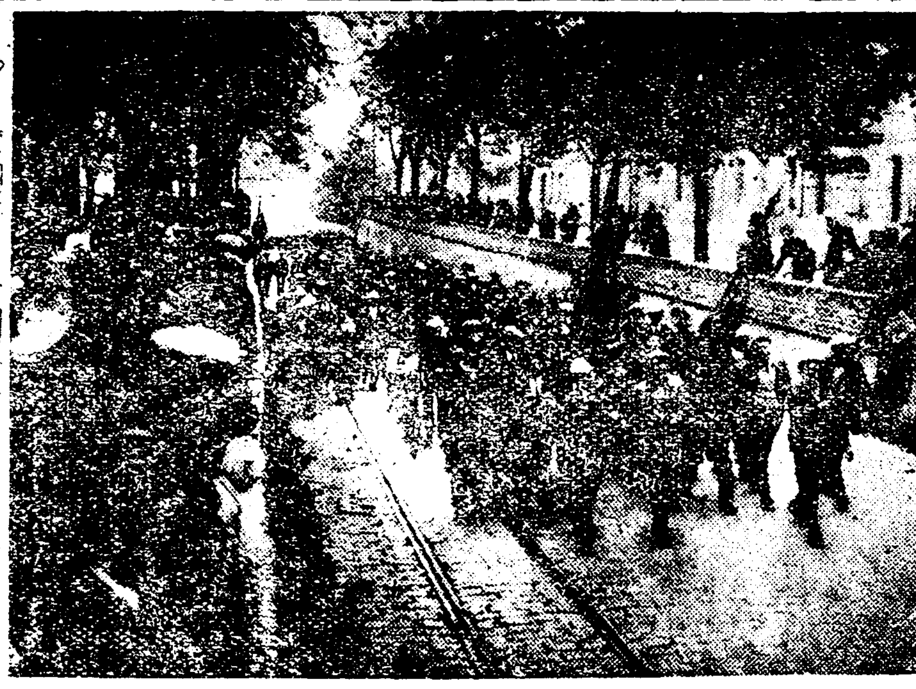
다음에兩代表는直時協定草案作成에對하야兩代表는二、兩月中에詳細한條件을發表하게될것이라고述하엿다

英關係當局의關心

日英會商을期待

印度外의日本品攻勢注目

【東通런던스러던四日發】 日印會商에對하야英國關係各方面에서는모도此를事實上이미成立된것으로看做하고第二幕인日英會商의迅速한展開를期待하고잇스나日印協定의成立이『랑카쉬』新綿業者에게及할影響에對하여는모도悲觀할必要가업다고云한다 但日本은今後協定割當數量의範圍內에高位의對印綿布輸出을續하리라고豫想하고잇고 그리고英國關係各方面의關心은벌서印度를떠나서海外市場에잇서日本人의活躍에向하고잇다 特히滿洲에잇서日本人의最近積極的攻勢와廣遠에서보는『랑카쉬』의敗退에對하야는對策等의소리가急激히高調되고잇다



◇…佛國勞働者의勞賃引下反對示威

(사로內閣의減俸政策에反對하야 有名한씨、지、트의組合員들이巴里官衙의中心地에이리를進行하는光景)

米大統領豫算敎書의內容

九十億弗의收入不足은豫想

產業復興運動에對한樂觀的見解를披瀝

【聯合華盛頓四日發】 루즈벨트大統領은三日米兩議會開院式에서朗讀한一般敎書에뒤니여四日午前議會에豫算敎書를送하야今後二個年間에產業復興運動으로合計九十億弗의歲入不足을生할憂慮가잇다는것을報告하고그不足額의大部分은公債로써補充하겟다는旨其他豫算大綱에對하야世私見을表明하엿다 루즈벨트大統領은特히產業復興運動의結果에對하야자못樂觀的見解를述한結果米國의經濟界와政府의收支에對하야商業活動의好轉할結果를자못自信잇게確信하고잇다 同敎書中에示된今後二個年間에잇서政府歲入及歲用豫算은다음과如하다(單位百萬弗)

一九三四年歲出

經常部豫算	三、〇四六
臨時部豫算	六、三五七
따로擔保信券整理銀行局繼續資金	一、一六六
總計	一〇、五六九
右는產業復興會社資金	三、九六九을合함
歲入	三、二六〇
差引歲入不足	七、三〇九

一九三五年歲出

經常部豫算	三、二三八
臨時部豫算	七二三
總計	三、九六一
歲入	三、九七五
差引剩餘金	〇一四
따로產業復興事業關係	二、〇〇〇
差引不足額	一、九八六

그리고公債發行은全會計年度內歲入不足을補塡키爲한六十億舊債償還키爲한四十億合計百億弗의巨額에達할모양인바 敎書中海軍豫算에關한部分은左와如하다(單位弗)

海軍豫算額

內地經費	二八六、〇三〇、七二五
	五三、八一九、三三四

右는目下建造中인最後의一萬噸巡洋艦一隻 三千噸六吋巡洋艦二隻 其他十五隻의建艦에要할經費를合한 相若建艦은公共事業費中 二億三千八百萬弗 三十二隻은包含되지안엇다 海軍豫算은從來의未支出資金을加하야 合計三億一千十八萬三百萬으로되고 또新豫算은左와如히 兵員의增加를規定한 新艦建造에依한乘組員의增加二千八百人 新定員八萬二千五百人 海兵隊增加一千人 新定員一萬六千人

英外相歸國

무首相懇談終了

【聯合羅馬五日發】 三日부터前後二日에亘하야 뭇솔리니首相과軍縮問題及聯盟改組問題에對하야重要懇談을行한사이먼外相은五日正午羅馬를出發하야巴里經由로英國에向하엿다 歸國後今次巴里及羅馬會商에서協議한政局局面打開策을閣議에諮하야英國政府의具體的政策을決定할터이다

軍縮協定問題에

英伊會商成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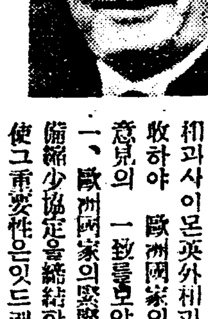
獨佛의要求도考慮

【聯合羅馬五日發】 前後二日에亘하야 뭇솔리니首相과사이몬英外相과의會談은豫期以上의好結果를收하야 歐洲國家의危機打開策에對하야 特히如左히意見의一致를보앗다고確聞한다

一、歐洲國家의緊密한急務는될수잇는대로速히軍備縮少協定을締結함에잇다 聯盟改組와가튼것은假使그重要性은잇드래도 軍備縮少協定을締成한以後에나올第二義的의問題다

一、軍縮問題에關하야는 獨逸佛蘭西兩國의正當한要求를滿足케하는것을主眼으로하지안호면안되다

一、聯盟改組의目標는 聯盟의現在機構를維持强化함에存在할것이다 따라今回의會談에서는 聯盟改組의具體的方法은何等論議되지안은模樣이다 사이몬外相은五日出發前에新聞記者團에게對하야聲明書를發表하야 會談의經過에對하야如左히述하얏다 余는今次의會商의結果各國政府가軍縮事業의失敗에依하야 國家가利益을受치안흔것을充分히認識한것을알엇다 余는佛國伊太利兩國政府가誠心誠意軍縮事業의達成을期하는것을痛感하얏다 이意味로파리로마의會談은모다有意義하얏섯다 (寫眞上은뭇소리니氏下는사이먼氏)



中央軍延平占據로

福州人心極히動搖

人民政府의要人等續續避身

【聯合福州五日發】 閩江上流의中心都市延平은三日完全히中央軍에게占據되고水口、延平間의汽船은不通되엿고 그리고右報道가四日夜福州에傳達되자福州의人心은極度로動搖되여一方確實한消息에依하면 三日革命人民政府는中心人物인文化委員長蔣光鼐氏及政府委員李章達氏는福州로부터逃亡하야行衛를감추엇다

【電通福州五日發】 兩三日以來中央軍이福建海岸에上陸한다는風說이各地에流布되여 當地市民은混亂에陷할것을豫想하고 자못不安을感하고잇다

失地回復努力

張學良一氣焰

【聯合싱가폴四日發】 歸國의途中에잇는張學良氏는二日夜當地에寄港하엿스나上陸치안코往訪記者에對하야左와如히말하엿다

余는南京政府의招電으로急遽上海에直行한다 歸國後는中國의統一國力의充實을圖하야失地의回復에努力할決心이다 또經濟進出、敎育의普及은目下中國의最大急務라고思惟한다

또張學良氏는中國內政問題에就하야는緘口不言하엿스나 佛蘭西의軍備와伊太利의파쇼에關하야는意氣조케말하엿다 南京政府伊太利人顧問델날테氏도張學良氏와同途하엿다

中央軍飛機

連日爆擊을敢行

【電通上海五日發】 中央軍은舊臘末부터福建北部建陽에飛行場을建設하고 同地를根據로卅一日은建甌을 一日은延平을 二日은谷口을 各其爆擊하고福建西部에連日出動하야 脅威을與하고잇다

八面錄

◇米國豫算七十億弗、圓貨로換算하면約二百億圓、二十一億의몃곱인고。

◇그래도全人口로分하면每人七十弗의負擔、이것이만흔지적은지는니라景氣의如何로써計算할것。

◇小寒을前後하야、日本에大雪、北滿에酷寒。朝鮮에는눈도아니오니、乖候라할가。

◇날시야칩건말건 겨울은겨울일네。눈보라안친다고 뉘능히벗고살니。아마도새봄되기전에 겨울자세잇스리。

滿洲國立憲政治

三月一日부터實施

【電通新京五日發】 來三月一日를期하야滿洲國은立憲政體를採用하기로되야 文字와如히近代國家의威容을整備하기로되엿는데 此憲法發布의實效에는一年의準備期間을두고 大同四年三月一日로써實現되기로되엿다 滿洲國憲法의中樞로서 自由民權을定하고 人民에依하야選擧된代表者를國政에參與식히게되엿는대 此가實現되는때에는建國滿二年에滿洲國은立憲國으로서名實共히近代國家의威容을誇張하게되엿다

荒木陸相

病勢念慮의症候

【聯合東京電話】 荒木陸相의容態는五日午前九時三木軍醫監、田原兩博士、合田陸軍省醫務局長의診察으로는體溫三九、四脈膊九四、呼吸二四로右肺下葉에肺炎의症狀을認하엿다

五日重湯五百그람、스-프牛乳少量을攝取하엿다 午前中에는政界多數人士의訪問來訪이잇섯다

【聯合東京電話】 荒木陸相은元日부터感冒로서加療中이던바 四日午後에至하야病狀은肺炎으로되야 諸博士의診察의結果 今後餘病을併發치안코順調의經過를밟는다하드래도 全快까지는적어도一個月을要할것으로診斷되엿다

日米通商調整의

審議會設立

在紐育日米實業者間

【電通東京電話】 四日在紐育總領事館으로부터外務省에到達한公電에依하면日米間의通商關係의調整을圖하기爲하야或種의機關을設置하려는 昨年末부터米國全國貿易協議會會長인유에쓰、스틸社長재임쓰、파렐氏同協議會會長及在紐育正金銀行三井物産三菱商事支店長等日米有力實業家間에計劃되여協議가進捗되여오든바 年末에이르러全國貿易協議會의姉妹團體인日米通商審議會를設立하기로意見이一致되여 在紐育日本人四十餘名會合에잇서서도全會一致로贊成하엿다 去十二月二十八日日本側으로부터總領事、正金銀行三井物産、三菱商事谷支店長出席하야米國側과의間에豫備的署名을完了하고 右審議會는一月一日부터開設키로되엿다 審議會의目的은兩國間의通商上利益을增進하고 日米兩國間의理解를一層깁히하는데잇고 會務를處理키爲하야執行委員會를設하야 日米兩國으로부터六名式의委員을選出하야 目的을達成할目的으로必要한事業을行하야 各種情報調查等을新聞紙에發表하고 委員은全國貿易協議會가主宰하는貿易振興委員會의會合에參加할수잇게되엿다 紐育日本人商業會議所는此와提携하야事業의達成을圖할터이다 그리고全國貿易協議會는全國의有力實業家를網羅하야米國貿易界의中樞機關이오有力貿易團體二十團體를包含하고잇다

루國手의自畵自讚

【獨白式】 米君 내가米君의主治醫로된後로 高熱은平溫으로되여가고 病菌은이와가치每日上昇中에잇습니다 經濟는매우조와갑니다」하고 뎌드니『弗』君은容態는如前

胡漢民氏不動

中央의胡氏引入策失敗

【聯合上海五日發】 國民黨第四次中央執監全體會議의開會期가切迫됨에따라香港에잇는胡漢民氏의態度에關하야種種議論이紛紛하야 一時는胡漢民氏가入京하야 同會議에出席한다고傳하드니五日行政院長汪精衛氏는胡漢民氏의北上說을否認하고左와如히말하엿다

「定대로中央執監全體會議는遂會議에關하야昭開催되여右가討議되리라고伊하나側超知치못하엿다 胡漢民氏가會議에出席하기는千萬업스리라고생각한다 一方立法院長孫科氏의南下에對하여는 胡漢民氏를引出할使命을帶하엿섯스나 그目的은完全히失敗되엿다는觀測이流行한다

厦門領事會議

時局對策을協議

【上海聯合五日發】 福州來電에依하면日本領事를除한厦門大鼓浪嶼駐在各國領事는四日外國銀行과厦門商館代表를交하야英國領事館에서領事會議를開하고

一、厦門目을決議하엿다

을他에轉賣할方所有한商品

各國銀行은厦門에現金을두지안을것

中央軍敗北

但福建側의情報

【電通上海五日發】 福建來電에依하면 溫州南部에잇든中央軍은八十七師의一個營、八十八師의三個團及王均部下의一個旅는福建側에加擔하야 三個團은武裝解除되고一個團은逃亡하엿다 그리고八十八師의旅長孫元良은行方不明이되엿다 福州에서는四日八十七師歡迎포스터를貼附하고八十七師의兵若干은自動車로市內에到着하엿다

福州厦門居留民

保護를嚴重要求

【聯合南京五日發】 南京政府가去三十日送達한福州厦門의外國居留民撤退要求通牒에對하야 日本總領事館은四日日高總領事를通하야逆捻的으로日本人居留民은多數에達하야撤退하는것이不可能하다는理由를述하고 南京政府에對하야居留民保護의責에任하기를嚴重히要求하엿다 一方英米兩國도同樣居留民保護의責任에對하야南京政府의注意를喚起하엿다

學校出身のドラ息子糞喰へだ！成功の秘訣は實力にあるる!!今日は獨學の時代!!

國民中學講義錄

社會へ出たい人のために!!

上京して成功したい少年青年諸君!!又都會へ出て運命を開拓したい人は詳讀せよ

時代の進步と共に凡てが實力時代だ府縣や學校出のドラ息子糞喰へだ！獨學!〳〵又獨學! 出版術の進步は無產者我等の渡し船であり國民中學全科講義錄はその指導者である。新聞や雜誌を讀んでいろ〳〵と考へてゐても別に方針も立たない人は特に考へねばならぬ。昔から百聞は一見に如かずと云ふことがある。田舍でクヨ〳〵考へるよりも手つとり早く都會へ出て活躍した方が經驗になつて成功の近道である。此の眞理を否定する者が居るとすればその人は氣狂ひか底無しに決まつてゐる。

スピード時代には常に他人より一歩先きを進まねば落伍者ルンペンになること必定

講義錄で成功したい人は讀め!

目まぐるしいスピード時代に一年半もかゝる講義錄では成功は出來ない不景氣の世の中に紙屑同樣の講義錄を一年も賣りつけられる人は大馬鹿だ。諸君の中此の言葉がつくづく理解出來るであらう。最新講義全科を一冊に徹底的に精解し完備した本講義錄は價段も十分の一にも當らない安値で思ふ存分勉強さして異れる中學講義錄中の最高峰である

受驗の虎の巻はこれだ! 專門校へ目ざす人は必らず讀め!!

中學全科を一冊にまとめてある今後未到の大智能集!!

特價 貳圓五十錢也 送料 二十錢

見よ各講義一冊に集る!

國語講義 修身講義 英語講義 漢文講義 作文講義 歷史講義 地理講義 博物講義 物理講義 化學講義 算術講義 幾何講義 圖畫講義 體操講義 課外講義

目錄進呈 本書は藥料大冊につき他の講義錄の三千頁乃至四千頁の內容を本講義錄中に包含せる東洋隨一の完備せる中學講義錄なり

特典 いろは辭典進呈す

中學全科を最新速度で講述

皆さん驚いてはいけません本當にタッタ二圓五十錢で中學卒業の學力が完全に得らるゝのです。中學校へ入つて卒業する迄には五ケ年の長年月と三百圓の月謝が必要です。そして其他に教科書、小使等が中々掛ります。では中學講義錄で勉強するならばどうかと云ふに少く共一ケ年の月日と十數圓の會費が必要です。今回出來た「國民中學全科講義錄」は獨特の方法に依て中學校五ケ年間の全科目を要領良く一冊中に講義してあり此一冊を讀めば中學卒業の學力が完全に付くやうに成つてゐます。而も其の價はタッタ二圓五十錢です。從つて本書を求める方はタッタ二圓五十錢で中學校を完全に卒業したものと同じであります。今や各中學講習會に入會せんとする諸君は皆從來の難解なる其講義錄を捨て本書に乘りつゝあります。成功は早いが勝です。皆さんも何卒直ちに本書をお求め下さい。

東京市麴町區三番町五番地

國民中學院

電話九段二一三七番

今年에新學級增設
不過二個學級豫定
未就學兒童은二千名豫想
市內普校의收容能力

新春은반가우나 憂鬱한이消息

천시(天時)는 항상 변함이 업스되 인사(人事)는 나날이 최함축이 잇서 별서 새초가 되고보니 오는봄의 일거리가 새삼스레 생각킨다 해마다 문제이오 봄마다 두통꺼리가 되는 초등학교입학아동문제가 다시금 덤미를 짓는다 어제오는 봉경성시내의 열려덜 군대 공립보통학교의 초입학아동 수용능력을 보건대 현재입학년은 총수오십오학급인데 오는봄에는 두개학급이 증설되여 전부 오십칠개학급이 되리라는바 한학급의 수용능력은 륙십오명평균이어서 삼천칠백오녕의 신입아동박게는 더수용할수 업게되는바 작년입학긔의 지원자 사천륙백한명에서 삼천오백칠십오인만이 수용되고 일천이십륙명의 아동이 거리로 쫏겨난터인데 조선은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아니한 까닭에 학령아동의 수효를 조사하지 아니함으로 경성시내의 학령아동만도 자세한 수효를 알수업스나 소극적 견적(見積)으로 작년과 갓다고만 한대도 금년의 학령아동 사천륙백명과 작년의 불합격아동 일천이십륙명을 합하면 오천륙백명의 아동이 학교문을 두드릴것인데 삼천칠백명박게는 더수용할수 업스므로 결국 일천구백명 즉 이천명의 아동이 금년도 역시 거리에서 방황하지 아니치못할 운명이다 반가운 새해는 되엿스나 소식은 얼마나 우울한가를 짐작할수잇다

昨年中貿易總額
朝鮮初記錄作成
朝鮮人을거친輸出入은얼마나?
比前年二割九分增加

약진하는 조선 산업의 발전상(發展相)을 증명하는 조선대외국무역은 작년 발전하고 잇는데 특히 작년중에는 비상한 발전을 하엿다 이제 총독부의 조사에 의하야 작년중의 대외무역을 수입수출별로 보면 다음과 갓다 (單位千圓)

	八年	七年	增加	同上步合
輸出	五二、七七三	二九、二一〇	二三、五六三	八〇、六
輸入	六四、三六八	六一、六八六	二、六八二	四、三
計	一一七、一四一	九〇、八九六	二六、二四五	二八、九
入超	一一、五九四	三二、四七五	二〇、八八一	—

전긔와가치 무역총액은 일억일천칠백십사만일천원에 달하야 전년도에 비하여보면 이천륙백이십사만오천원이 격증하엿다 그러나다서 수출무역액만을 보면 작년은 총액 오천이백칠십칠만삼천원으로 전년에 비하야 실로 이천삼백오십륙만삼천원이 격증하야 팔할이상의 대발전을 보이고잇다 그라하야 과거의잇서 수출총액의 최고긔록을 지엇든 소화사년의 삼천오백칠십칠만여원에 비하여보아도 작년은이 「레코-드」를 돌파하야 일천칠백여만원이 격증하엿다한다 그럼으로 결국 작년중에 수입초과(超過)는 일천일백오십구만사천원으로 감소하야 전년도에 비하여보면 이천팔십팔만일천원이 격감하엿다 그리하야 수출무역이 증대한 결과는 전긔와가티 수입이 전년에 비하야 륙할사분이 경감을 보이여 대정륙년이래의 최소액을 나타내이엿다 그러나 이와가티 약진하는 조선무역은 그무역품중에 조선인의 손으로 제조되여 수출되는것이 얼마나 될가 함에는 그비약한 정도는 의심할 여지도 업슬것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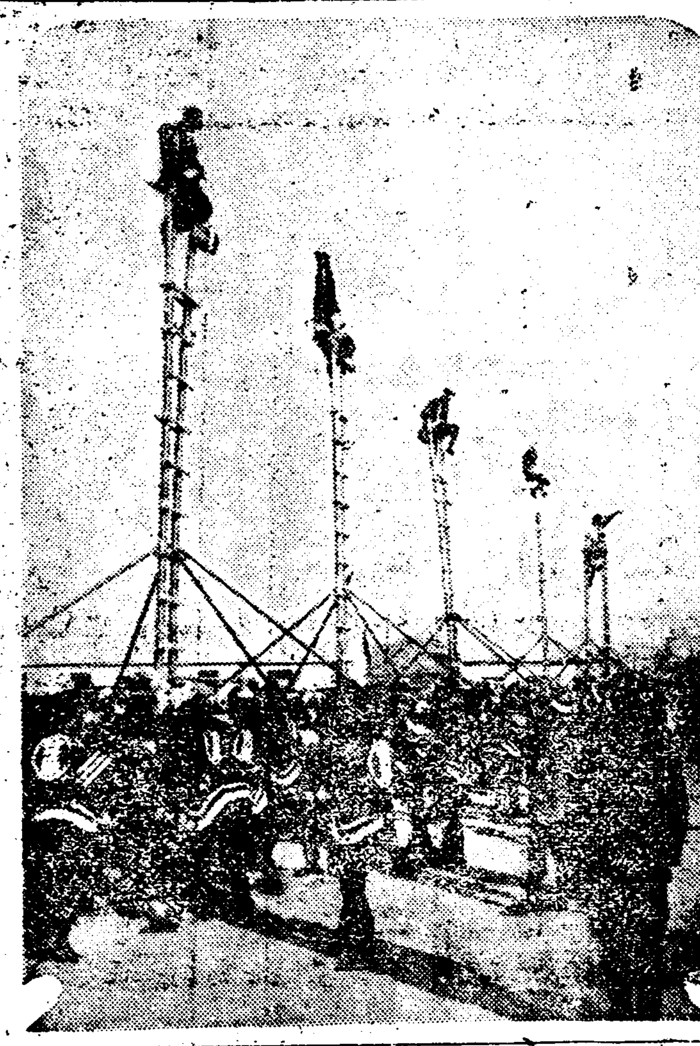
硫安이輸出筆頭
輸入은原料品
燃料品의輸入도增加

전긔한바와가치 약진하고 잇는 무역중에 수출무역은 류안비료(硫安肥料)의 신규(新規)수출액 삼백칠십팔만이천원을 비롯하야 목재 철재(鐵材) 철도차량(車輛) 세멘트 수산물제품등이 비상한 진전을 하고 수입무역은 작잠생사(柞蠶生絲) 원료당(原料糖) 면화 대두등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잇는데 원료품과 연료품(燃料品)의 수입등이 증가하야 전년에 비하야는 결국 이백륙십팔만여원 약사분여가 증진하엿다 그리고 수출입무역품중 금액삼백만원이상의 것을 표시하면 다음과갓다

輸出品	輸出額	輸入品	輸入額
硫安肥料	三、七八二千圓	柞蠶生絲	[illegible]
木材	三、〇五九	石炭	三、二三一
鐵	三、〇六一	豆粕	三、四五〇
水産物	三、〇五七	豆類	四、三二四

消防出初式에 梯子에墜落殉職

(오일강릉지국착전)=사일에 강원도강릉소방조(江陵消防組)에서 연습겸출초식(出初式)을 거행하든중 동소방조 소두(小頭) 정지메삼랑(定池隆三郎)(三五)씨가 동일오후 령시 사십칠분경에 사닥다리(梯子)를 타고 연습하다가 추락하야 두개골(頭蓋骨)과 늑골이 분쇄되여 현장에서 참사하야 순직하엿다는데 오일오후두시에 강릉경찰서 압해서 소방장(葬)을 거행하엿다한다


소방조의정초사다리타기광경(공설운동원에서)

待機中의新義州高普軍

【新義州】 歐氷원터—스포—츠界의 자랑으로 全朝鮮中等氷上界의 王座를占한 所向無敵의 新義州高等普通學校氷上競技部에서는 朝鮮體育會와白鷗滑氷俱樂部主催로 來二十日漢江鐵橋우에서 開催되는 第二回全朝鮮中等學校氷上大會에 連霸를目標로 지난十二月二十三日부터 合宿練習을 하고잇다한다 一行은 十三日體協大會에도 參加할터이라하며 京城과平壤의各中等校를相對로完熟한妙技를 發揮할것으로 新高軍의活躍은 자못期待된다 寫眞은新高軍의陣容

小作令發布앞두고
大邱地主會大動搖
某大官排斥運動도擡頭?
大邱署는目下嚴戒中

【大邱】 소작령(小作令)제정이 총독부에서 심의되자 각방면에 큰충동을 주게되여 전조선각지의 대지주들로부터 맹렬한 반대가 잇서내려옴은 이미다알린 사실이어니와 그중에도 더욱 대구지방은 전조선적으로 가장 지주들이 만흔곳인만치 더욱이 맹렬한 반대가 잇는곳인데 금번 총독부당국이 전번에 지주들에게 언명한 최후의 결정을 지을때는 다시한번 의견을 듯겟다는 권약을 번복하고 그대로 의회(議會)에 넘겨버리고 말엇다하여 아연 대구부내각 대지주들간에 물의가 분분하여 이러한 미증유의 현당국자마테서는 안심하고 지낼수업다하여 모당국자배척운동?에까지 나아갈모양으로 대구 농본회(農本會)라는 수십명의 일류지주들로 조직된 회가 주동이되여 맹렬한 활동을 이르키여 회의간부인 현도평의회원 일포(日浦)씨가 극비밀리에 지난이십륙일 본부인 경성모처로 특파되여 상경하는일방 삼십일에는 다시 동척대구지점(東拓大邱支店)에서 현동척지점장인 동화의회장 추산삼부(秋山三夫)씨와 부회장 정해봉(鄭海鵬)씨 조종으로부터 일류부호인 리장우(李章雨) 서병국(徐丙國)외 십수명이 역시 극비밀리에 회합하여 전후네시간을두고 이에대한 금후의 대책을 협의하는등 형세는 자못 가볍지안은 모양이다 이에 놀래인 소관대구경찰은 정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대가 각처로 허터저 그들의 행동을 엄밀히 감시하는일방 개인개인에게 경고를 발하는등 진정식히기에 노력하는중으로 목하 긴장한상태에잇다

小作料를 떼이란말이요?
大地主李章雨氏談

이에대하여 이번사건의 주동격인 농본회의 회원중 유력한 한사람인 리장우(李章雨)씨를 자택으로 차즈니 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소작령때문에 얼마나 근로되시요』

『네, 네』

『마츰내 이번에 의회로 넘어간모양인데 거긔에대한 귀하의견이 어떠시요』

『나는 견딜수 업소 소작료를 떼이란말이요? 글세 지주를 끌려도 분수가잇지 소작인들이 금년에 소작료를 못내거든 명년까지 연긔해주어라 만약 일부분만을 못내거든 멧해동안 연긔해밧어라 하니 글세 이럴수가잇소? 애초에 밧지마르란말이고 소작인들게는 떼어먹으란말이니 이러고야 견딜수잇소? 그러라고 소작료를 떼이면 지세(地稅)나 면제해준다오? 안내면 집행해 갈테지요? 그러니 소작인놈 한테는 소작료 떼고 관청한테는 땅집행 당해서 땅빼앗기고 — 그일좃소! 여보시요 땅가진사람들은 돈깔아노코 리자(利子)밧아먹는 셈이요 리자밧어먹으려다 본전까지 떼이란말요』

다고하며 씨는 분개한어조로 말하엿다

全道中最惡慣例
普通七八割의小作料를徵收
舊慣支續이地主運動

경북지방은 종래 다른도와도 달러 소작관행(小作慣行)이 가장 납븐곳으로서 지주들의 소작료증수관계는 상상이상으로 혹독한바잇서 아무리 후하다는 지주로도 소작료를 칠할이상을 밧어갈뿐만아니라 심한자에 이르러서는 팔할까지 밧어가는외에 다시여긔에다 지세(地稅)까지 부담식혀오소작인들의 그가련한 처상은 이로볼수업는 상태로 이때문에 경북도당국도 목하 머리를 알코잇는중인데 이러고도 소작인들로부터 하등불평이 업슴은 이것이 즉 그종래로부터 잇서내려오는 경상북도지방의 독특한 소작관행때문으로 주종의식이 강렬하게 주입된 이지방소작인들은 행여 소작지가 때문에 떠러질가하여 눈물을 먹음고 견듸게됨이 큰원인이라하며 혹독은선지도 개중에 여긔에 눈을뜬 선각자도 잇서 종종 문제를 이르키기된일도 잇스나 그럴때마다 이러한 동석인 주종의식때문에 번번히 중도에와해를 당하여버리고 말게되여 언제나 자긔혼자만이 희생을 당하고 나안지게되는 까닭에 권연이 소작쟁의는 전멸인 상태에 잇게된것이라 한다 소작조정령(小作調停令)이 발포된이래 적년을두고 원동하게 당하고잇든 소작인들은 이것을 비로소 당국에 호소하는 길을 엇게되엿스나 수년동안 습관에 어매여 작년일년동안에 소작쟁의의 사소한 불평이 잇드라도 이를 그대로 묵쇄식히고 말게되여 조정신립(調停申立)건수는 겨우 오십삼건에 지나지안헛다하며 경북도당국은 그들 대지주들의 운동은 전조선적으로 특수한 악한관례를 가진 이지방소작관례를 그대로 지속코저하는 의미임에 따라 일반의 주목도 크다

京圖線列車顚覆
猛寒으로鐵橋地盤이毀傷되여
死傷者十二名判明

【軍迎新京五日發】 경도선(京圖線)도문(圖們)역을 출발한 가신경(新京)행려객렬차가 오일오전아홉시이십분경에 이도하 류수하(二道河 柳樹河)사이 철교에 다다랏슬때 맹렬한 치위로 철교의 지반(地盤)이 부프러올라 선로가 파괴되다시피되여 미처것잡을사이업시 일순간에 탈선전복하야 일, 이, 삼등객차대와 식당차가 산산이 부서지는 대참사가 잇섯다 이와동시에 사상자 십이명을 내엿는데 망자중에는 돈화(敦化) 동아토목출장소원 원야정준(元野宗俊)씨가 잇섯고 반택송사랑(半澤松四郎)과 연길현주재만주국군제삼십칠려장(旅長) 류(劉)등이 잇는데 길림(吉林)에서 급행한 구원렬차에 수용하고 모다 수당중인데 오일오후(?)에 복구될듯하다

靑年四名被檢
楊平서靑年會組織타

【楊平】 지난삼십일에 양평경찰서에서는 청년네명이 소환되여왓섯든바 돌려보내지안코 유치하고 엄중취조를 한다는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그청년들은 동군 갈산면창대리(葛山面倉垈里)에 사는 김춘식(金春植)(二五) 김광식(金光植) 김홍식(金洪植)(一九) 김혈식(金血植)(一二) 네명으로 그중 김춘식은 만주에서 도라온지 몃칠안되는 사람인바 이사람외 긔외삼명이 중심이되여가지고 경찰에 알니우지안코 청년회를 조직하고 요사이는 공동으로 청년회원들이 부업작업을 열심이 하고잇는중이엇는데 경찰에서는 이러면에 다른 무슨뜻이나 잇지나하야 그와가티하는 모양으로 양평경찰은 농촌진흥회이외에는 방계적이나 대립적이나를 불구하고 다단체는 일체 금지를 식히는바 일전에는 동군양동면(楊東面)에서 청년륙명이 이것으로 소환되여 취조를 밧고 설유석방된일도 잇섯다

李秀峰
脚氣로呻吟

【新義州】 상해에서 백천(白川)대장을 암살하야 일세를 놀라게한 리수봉(李秀峯)은 작년십일월이십이일에 평북경찰부에 압내(押來)되여 류치장에서 과세하고잇던바 다년해외에서 풍상에 시달린 남아에 류치장고초를 맛본 까닭인지 충심성(衝心性) 마른각긔(脚氣)로 인하야 만흔고통을 맛고잇슴으로 평북경찰부에서는 시내청산병원(靑山病院) 류의사를 청하야 치료하는중이라고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滿洲에잇서七百七十四耗를示하며 朝鮮을經하야日本方面으로나가지고잇다 半島의西岸은氣壓의配置가좀不安定하고 南西岸과北東岸은흐리며 其他는天氣가조코氣溫은昨朝보다 좀나리겟다 明日도天氣가조흐나치우리라

昨日氣溫 最高零下五度五 最低零下十一度九

今朝最低 〇、一二六九

今日正午 〇、五、〇

時局問題를附會
蜚語妖說을宣布
車景錫은實狀鄭哥라고主張
所謂鄭鑑錄의正體解剖 (七)

한자지례를 들어볼것가트면 역시 정감록속의 일부인 원제춘수귀부지(猿啼春樹鬼不知)라는것과 일천풍우계명시(一天風雨鷄鳴時)라는것과 만국성진견폐시(萬國成陣犬吠時)라는것이니 그들의 하는바 해석을 비러보면 『원제춘수귀부지』라는 것은 「원」(猿)이란것이 신(申)년을 의미하는것이나 임신(壬申)년에 만주국(滿洲國)이 서립된것이라고 하는것이며 『일천풍우계명시』는 「계」(鷄)가 유(酉)년을 의미하는것이니 계유(癸酉)년에 일본이 국제련맹을 탈퇴할때에 국제련맹리사회(理事會)에서 풍운을 이르킨것이라고 하는것이며 『만국성진견폐시』는 견(犬)은 술년(戌年)을 의미하는것이니 갑술년 즉금년에 세계전쟁이 나는것이라고 한다는것이다

×

과연 그들의 말대로 이것이 마젓다고 가정한대도 임신년봄에 만주국의 성립을 안다면 반드시 그원인이되는 신미(辛未)년구월십팔일밤의 남만철도폭파사건을 손톱만치라도 알지 못하얏슬리가 업겟거든 여긔대한말은 한마디도 업시 돌연히 만주국의 출현을 예언하얏다는것은 천치(天痴)가 아닌사람으로는 누구나 밋거나 역이지 아니할바이며 『일천풍우계명시』라는것을 일본의 국제련맹탈퇴라고한다면 이문제를 노코 당장에 전쟁과가튼 험악한일은 업다고한대도 적어도 이문제 까닭에 면면나라가 국교(國交)를 단절하다던지 또는 이상의 엇더한 강담판(强談判)이라도 마조 건너다면 모르거니와 『일천풍운』이 될만한 아모러한 변화가 업는 것을 보아 그여말이 아니되는것을 잘알수가잇다 그러면 아즉 그다음의 소위 『만국성진견폐시』라는것이 금년의 일을 예언한것이라니 금년이다 지나기전에 미리 추측할바가 아니나 우발 등중이 된다고하드라도 아모 런사적고 소라에는 귀를 기우릴사람이 업슬것이다

×

가지각색으로 말이야 되든지 마든지 엇더케하야서라도 수준(水準)이하의 어리석은 무리들을 속이기에만 여념이업는 그들이 다시 현금의 시국에 영어리를 데가지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하야 민중을 현혹식이느라고 지랄을 기우린 나머지 마츰내는 궁여(窮餘)의 책으로 한마디 속단을 빌어다가 구구한 해석을 붓치엇스니 그것은 맛해 천부터 상남지방 그중에도 불학무식한 부류의 인간들이 쓰는 의미가 도모지 통치아니하는 말 즉 『조지로와 몽을 친다』는 말을 빌어다가 『조지로』라는 것은 『조선』(朝) 지나 즉 중국(支) 로서아(露)가 협력하야 무슨일을 한다고 만주문제를 노코 미묘하여지는 일로의 관계와 일중의 사태를 비교하야 민중을 속여 노코는 이끗헤 계룡산도읍이 꼭 실현될것이니 그주인은 지금 보천교(普天敎)의 소위 교주라고 하는 차경석(車京錫)의 손자 동영(童榮)이라는 아이이니 차경석은 지금 『차』가의 행세를 하나 실상 차경석의 모되는 박성녀(朴姓女)라는 여편네가 정(鄭)가에게 몸을 당하야 『차경석』을 나앗슨즉 그실은 『정경석』이오 지금 모처 령산십삼에서 『정동영』이란 인데(정경석)의 손자 무예와 병서를 공부하는중이라고 선전을 한다고한다 실로 포복절도할 이야기가 아닐까?

關西體育會主催
全朝鮮氷上競技
來廿七日大同江에서

【平壤】 關西體育會主催第八回全朝鮮氷上競技大會는二十七日午前十時부터 練光亭下大同江氷上「링크」에서 開催키로되엿는데 申請期日은二十五日까지로 本社支局과 大平運動具店에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當日의競技種目은 다음과갓호며 番外競技도잇다고한다

◇競技種目

▲五百米▲五千米▲千五百米▲萬米▲二千米릴레이▲背進五百米

◇番外競技

◇小學生 ▲五百米

◇女子競技 ▲五百米

◇一般 ▲千五百米

學生아이스하키—
慶應連續優勝
明大는準決勝에惜敗

【東京日光電話】 第九回全日本大學·高專氷上大會아이스하키—戰은 五日午前十時부터準決勝 明大對慶應의對戰으로開始한바 大接戰끄테 二對一로 强豪明大惜敗하니 決勝戰에는 北大始終慶應에게 壓倒를當하야 六對〇으로 北大敗하니 慶應連二年選手權을 獲得하엿다

女子氷上新記錄
奉天木谷孃作成
千五百米에 3分14秒

【奉天五日發】 五日當地國際스케—트링크에서 行한奉天對撫順氷上競技大會에서 奉天高女一年生 木谷다에고(一四)孃은 女子千五百米決勝에 三分十四秒란 驚異的日本新記錄을作成하엿다

朝鮮硏武館
冒寒練習開始
來十一日부터三週間

市內藤松町에잇는朝鮮硏武館에서는 心身鍛鍊을目的으로 來十一日부터 三十一日까지三週間寒稽古를할터이라는데 館員多數에參加를바란다고한다

運動界人事

▲(平壤)大平運動具店에서는 南門通一丁目에煉瓦二層의廣大한店舖를新築中이든바竣工되여 西門通舊店舖에서 新築된新店舖에移轉하엿다고

第二期決算公告
貸借對照表
(昭和八年十一月三十日)

信託勘定

固有勘定

資産	金額
拂込未濟資本金	七、五〇〇、〇〇〇・〇〇
國債	一三二、八六六・五〇
株式	八六六、四四四・五〇
所有不動産	三六八、五二六・八四
國債其他有價證券擔保貸付金	五九九、〇八六・九〇
動産擔保貸付金	[illegible]
不動産擔保貸付金	[illegible]
當座貸付金	[illegible]
公共團體에對한貸付金	[illegible]
貸付金	[illegible]
預金	[illegible]
郵便貯金	[illegible]
立替金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營業用土地建物	[illegible]
什器	[illegible]
公社債利息其他의未收入金	[illegible]
未收補助金	[illegible]
未經過損金	[illegible]
現金	[illegible]
計	一〇、八四四、五六一・六六

負債	金額
資本金	一〇、〇〇〇、〇〇〇・〇〇
法定準備金	七、五〇〇・〇〇
職員身元保證金及積立金	[illegible]
保證受入金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未經過利息其他	[illegible]
銀行借入金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當期純益金	[illegible]
內前期繰越金	(一、九〇〇・三一)
計	一〇、八四四、五六一・六六
合計資産	[illegible]
合計負債	[illegible]

昭和八年十二月

京城府南大門通壹丁目拾九番地

朝鮮信託株式會社

取締役社長 谷多喜磨
取締役會長 韓相龍
取締役 色部貢
取締役 朴榮喆
取締役 閔大植
取締役 金漢奎
取締役 張稷相
取締役 森菊五郎
取締役 山村正夫
監查役 渡邊彌幸
監查役 金季洙

謹告

今月八日(第二月曜日)은 定期休業日이오나 形便에依하야 弊店만當日從前과如히 開店하옵기로玆以謹告하나이다

昭和九年一月七日

京城·鍾路 和信

大田藥令市

開市 昭和九年一月五日(陰十一月二十日)
閉市 同年二月十三日(陰十二月末日)

主催 大田藥令組合
後援 朝鮮日報大田支局
(附設醫藥講習會)

가정부인에게기뿐소식
금비녀한개二圓

금갑이비싼지금에금에떠러지지아니한미화금(美化金)을발명햇슴니다. 미화금이란도금에화학작용으로변치안케맨든것인데다가금비녀이상으로세공을가하엿스니가정부인에게기뿐소식이라고아니할수업슴니다.

비녀二圓 귀이개 창포첩 各五十錢式

마음에드지아니하시면물건을돌려보내시옵 돈을보내드리겟슴니다.

製造元 朝鮮미가리 京城府西大門外峴六六九八番 三合金銀商會

고무신은거북선

市內販賣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二一五九

治淋球
男女淋疾의靈藥

定價 五十個入 一圓八十錢 百個入 三圓

患者諸氏여言論보다効果에事實이證明되는力의有無는試用後可知하겟사오며用法禁忌等은說明書에詳記

京城南大門通四丁目 製造元 發賣元 救世藥舘 振替京城一二六九

此外製劑四十餘種武錢郵票보내시면割引券及規則書付

레코—드와 蓄音器具備
琴喜樂器店

京城鍾路通二丁目 電光一六三七

시에론레코—드 新譜大發賣

恩給

恩給立替其他低利比較事 京城笠井町百五 富國昌業社

一月七日낫부터 世界的大名畫特別公開

每日二回낫一時밤七時始映 大衆料金階上三十錢階下十錢均一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現代映畫 愛의防風林 全十卷 大日方傳, 及川光子 主演

꼿까지여라분을마처시킴이映畫야말노現代名畫임을자랑합니다

소시에다伊太利구란테社超特作映畫 文藝大名 폼페이最後日 全十二卷

第一劇場 鍾路四丁目

資本金壹千萬圓
各種信託 低利擔保貸付
朝鮮信託

朝鮮京城 (營業案內贈呈)

一九三三年의 朝鮮文學의 諸傾向과 展望 (五)

林 和

그外의 새로운詩人으로 金倫鎬、毛允淑等을 들수잇스니 金倫鎬에잇서서는 拙劣한詩句와 空漏한浪漫主義가 잇슬뿐이고 毛允淑에잇서서는 그의 『東光』誌에실린것과가튼 아모 香氣도업는 安價의感傷主義만이支配하고잇슬따름이다。

『最近』 그의詩集 『빗나는地域』에서바든 속임업는 感想을말하면 똑 그것은 옛날 禮拜堂에서주든 拙劣한 宗敎畵쪽지가튼 印象以上 더무엇을 차즐수업다 現實性업는 虛構의 詩想과 貧弱한想像力을가지고 不必要한豪華로운修辭로써 裝飾할려는것이 그의詩의特徵이다 그리고 그곳에따르는

『安價』의感傷主義! 이러한것이 사람의가슴을때리고 古典主義詩歌에서볼수잇는것과가튼 낡은 藝術的香氣를傳하는 詩歌가되지못할은 스스로明確한일이다

特히 이바게 時調의 外國語譯運動等에서 表示되는 封建貴族의 歌謠的 時調에 對한關心의 增大는 朝鮮의 現代詩의發展과 그들은 全혀無緣하게되엇다는것을 알수가잇다 웨그러냐하면 거기에는時調의現代的 繼承대신에 時調의復興이 要求되기때문에……

뿌르文學에잇서서의 精神性의高調 過去의亡靈에對한偏愛는 그들의藝術性을 一層貧弱하게만들고잇는것이다

◇카톨릭文學의提唱과 文學의退化

朝鮮의뿌르조아文學도 이제는 相當히갈만한곳으로가고잇다 思想과精神에對한 一般的憧憬에끗치지안코 今年에드러와서는 唯一的인 모든것의웃듬되는 絶對的精神에對하야强烈한欲求를表示하기시작하엿다

『文學』의 向이 이러한傾向이 必然的으로 宗敎文學의길에 自己의活路를 發見하는것은 그리奇異한것도아니오 오히려 오늘날에와서는 廣汎하게常識化된世界的現象이다

朝鮮의近代文學의發展過程가운데서 宗敎的傾向을 發見할수잇는것은 비단 今年에와서처음이아니라 벌서 數三年前뿌루文學이 一般的으로

『發展』을그만둔 三—四年代에 文學界로부터脫落한 田榮澤等外의 天道敎 基督敎的出版物等에依據한 有象無象의作家 詩人들에게서부터 具體的으로 表現된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今日과갓치世人의注目을끌지안코내려온것은、勿論그들이文學的으로無價値하엿다는데만 그原因이잇는것이아니다、一定한社會的條件에基因함이 오히려만타。

첫재 主로 그러한出版物이 一般의讀書的興味의圈外에잇섯고、그곳에서

『活動』하든作家라는것이、大端히 보잘것업는 사람들이엇다는것이 主要한原因인데、根源的인 原因은 前者이다。

卽一般讀書層의興味가 그러한것을도라보지안엇다는것인데 이곳에서、오늘날에提唱된「카톨릭文學」이 웨 一部分이나마도 讀書層의興味를끄으럿느냐하는 疑問의解答이잇다

朝鮮의讀書層은 우리가잘아듯이「인텔리」소위얼마큼 冊을읽을만한

『知識』을어든生活의餘有를가진階級이大部分이고 그外에는 上層의勞働者와農民이다

그러나 갈사록急迫하는現實은「인텔리」—主로小市民—들의生活의根據를파괴하고 의지할곳이업게하야 그大部分은 進步的方向으로가고確히保守的인側面된小數가「精神의安息處」를宗敎우에서찻게된것이다 勿論이것은朝鮮의뿌르文化藝術의過去的精神과의結合의 傾向과 並行하는것으로 뿌르주아自由主義우에形成된新敎나隆體한天道敎보다는 外來의中世的絶對主義의宗敎—카톨릭敎에對하야 關心이올수잇는것이다 더욱이

『朝鮮』 사람의社會生活가운데남어잇는 前資本主義的 諸要求는 뿌르주아的思想과精神에對한 渴望을 中世紀的暗黑의宗敎로 引導하기에 相當히 有力하얏스며 佛蘭西等地에서 들녀오는「카톨릭復興」의淡話는 消費的小市民의 興味의對象이되기에充分하엿다

그럼으로 아「카톨릭復興」이라는

『奇怪』한音響이 朝鮮이아닌朝鮮의文學가운데서 울니게된것은 決코 한개의偶然이아니다

「카톨릭復興」의思潮는 今日의社會生活의根據가 漸次로激烈한震撼우에섯게되고 그우에形成된文化가 同一한程度로崩壞의위협미테서떨며 새로운文化創造의 巨大한힘이擡頭할때 旣存의文化—藝術은 一層더단단히 中世의封建的支配의精神的擁護物이든「카톨릭」敎를두번다시 今日의世界의 擁護物로서 迎接하는것으로써 安觀的으로는說明되는것이다。

그럼으로 今日의뿌르주아文化、科學、藝術가운대서

『問題』하는「카톨릭시즘」에對한 關心의强化는、뿌르주아的精神文化의 最後의 危機의 物質的表現이다。

訂正 昨日本欄의林和氏의論「一九三三年의 朝鮮文學의諸傾向과展望」의 題目만은 李軒求氏의『非常時 世界文壇의新動向』의 題目과 박귀여作者와 讀者諸氏께謹告합니다

黑人文學 (六)

니그로文學의成長

韓 雪 野

「니그로」가 째스에能한것을 或者는 「니그로」의 筋肉에보다 特殊한彈力性을 주는事實에 또는關節中의칼시움分의差異에 잇다고說明하며 或者는 그環境의余的

不均衡 이라는差異에잇다고主張하나 그眞否는차치하고 그들이音樂의新分野에잇서서 優越性을가지고잇는것만은 事實이다

스토코—스키—는 째스가音樂의展望에 深甚한變化를與하엿다고말하며 또 아메리카의 黑人音樂家는 音樂에커다란寄與를하고잇다 黑人은公明한精神을가지고잇스며 偏見업는見解를가지고잇다 黑人은 音樂의血管中에 새로운血行을주기 시작하엿다 째스演奏家는完成된從來의著名한

音樂家 가 쓰지맙나고 한樂器까지 完全히새로운것으로再生식히고잇다 그들은 새로운王國의開拓者다——라고 感歎과贊辭를 앗기지안엇다。

째스는 아메리카에서와「니그로」의生活基底에가르두어잇는本質的인熱狂과悅惚의反映이며 그것은「니그로」藝術特히詩에 非常한混亂을 興하엿다 勿論째스의劣惡、低級한形式은 猥雜한先行時代의貴族의觀念으로부터의 粗野한流行이지만 그럼에도不拘하고 그것은偉大한獨創性의 美點과豊潤한

挑戰的 生氣를 가지고잇다。事實째스는 아메리카音樂에의 唯一한寄與이다。

그러나 이러한째스氣分이모든니그로藝術에浸透된것은아니다。그들의 만흔詩作에는자못氣擊性이 나타나잇고거진不自然하다고할만한 威嚴까지도낫하나잇다。

「그詩派、自然性과스타일의아름다운生氣가업서지고 또單純을자자야할境遇에도 堂堂한것을憧憬하야 結局그들의 詩를 不愉快한 文學的荒唐에까지墮하게한일도잇다。그代表的

文學者 卽『암버—드』 A·휘트맨「하퍼—夫人」「죠—지·모제스·호톤」「제임스·마틴스·벨」「죠셉·시몬·코타—」及「제임스·데비드·코로사스」의 詩에 잇서서 이러한 文學的荒唐의程度가 特히濃厚하엿섯다 그럼으로 그들의詩는 苦笑하리만치 센티멘탈하엿섯다 그러나時代는進展하엿다 이제의詩가 非難을밧게된것은 今日에이르러「란스톤·휴—스」「카운테·큐렌」「잔·토—머—」及「크로—드·막케이」와가튼 詩人에게指導되는 現代「니그로」新興詩人群의出現에依하여서다

文藝年報 (6)

一九三三年……

金八峯 『가을바람편에부치는편지』(隨—東亞九月)『根本的見解』(評—東亞十月)『小說創作의三三』(評—新東亞十二月)

金東鳴 『七十篇』(評—新東亞十二月)『사공이여』(詩—新東亞一月)『新願』(詩—中央二月)『黃昏』(詩—新東亞七月)『凝望』(詩—新東亞八月)『別離哀唱』(詩—新東亞十月)

金台俊 『中國新興文壇의窺見(蔣光慈)』(紹介—文學타임스二月)『朝鮮文學의國學的研究와社會學的研究』(論文—朝鮮二月)『朝鮮歌謠槪觀』(研究—朝鮮十月)

金大鳳

新刊紹介

▲文藝 (日文) 一月號 (重要內容) 少年의果實(入選)(竹森一男) 우리靑春(杉山平助) 外片澤光治良 室生犀星 阪中正夫 深田久彌 川端康成 永井龍男 中條百合子 德田秋聲 等의小說十篇 文藝家의生活態度의弛緩과肅正 (長谷川如是閑) 現代文藝評論家總評 (林房雄) 지—드研究 哲學으로서의文學의一問題 (谷川徹三) 文藝時評 (舟橋聖一) 晩年의롤스토이의童話 (吉田絃二郎) 特別附錄으로 비스(름스로이未將表遺稿) 其他評論隨筆詩 紹介滿載 (東京芝區新橋改造社發行 定價八十錢 振替東京八四〇二)

爭坐帖曰恬然於心固不以毁敎加怒喜爲何半席之座汨其志哉

珊瑚樹室主人閔衡植書

◇珊瑚樹室主人 閔衡植氏試筆

林巨正傳 (291)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이튿날 아침때 계향이가몸이아프다고하고 집으로 나가더니 저녁때 뒤보러 가다가 갓집에서 락상(落傷)하야꽁히 운신을못한다고 동긔가갑명안에 들어왓다 봉학이가 계향이를 나와보니 거드로 상한데는 별반업스나 앓는모양이 아무리보아도 속으로 다친것 가려서 「참말 아프냐」 하고 뭇기까지하얏다 계향의집에 의원들이 드나들기시작하며 늙은이와 기집아이는 하루종일 상약을 만들고 첩약을 다리느라고 밥들도 제때에 먹지못하얏다 계향이가 약재촉은 빤질하면서도 약먹기는 죽기보담 실혀 하고약을 먹으면 돌르는지 먹지안코 쏘다버리는지 약가릇점은 꿀이 하루한두번 곳요강에그들먹하얏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늙은이와 기집아이뿐이엇다 계향이가 몸지어누은지 륙칠일만에 머리들고 일어나기는하얏스나 한편다리

팔을 조금도 쓰지못하얏다 의원들의말이 영영반신불수(半身不遂)가될것갓다고하야 계향이는 문병오는 사람을보면 한숨을쉬고 눈물까지흘리엇다 계향이가 병신이되어서 기생거행을못하겟다고 소지를바치니 감사가 행수기생을불러서 물어보고 또 수로를 내보내서 알어보앗다 반신불수 병신된것이 확실하단말을 듯고 감사는 계향의일음을 기적에서 빼고 달은기집으로 데까지 드려세게하얏다

정의현감 교지(敎旨)가 서울서 나려온뒤 발서 여러날이지내서 신연하인이 올때도 되엇스나 풍랑에 뱃길이 느젓는지 아즉오지아니하얏다 이때마침 감사의과만이 다차서 내직(內職)으로올물지 잉임(仍任)이될지 몰르는중이라 봉학이는 아주알고갈맘이잇섯는데 신연하인오기전에 감사의벼슬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올랏단과별이 먼저나려왓다 다갈린감사가 내행(內行)은먼저차송(治送)하고 자긔는 새감사가와서교대(交代)하야주기까지잇슬작정으로 뒤를수습하는중에 벼슬이 다시 올마서 경긔감사로 가게되엇다 경긔에 감사가 갈이낫는데 에서 동지(同知)리유경이 가장뎌당하다고 물론이 돌아서 우에서 물론을조친것이다 내갈때 배행(陪行)으로떠난례방 비장은 말할것도업고 형방이외 달은비장들도 만히 감사를 딸하서 경긔로 가게되는데 봉학이는 혼자 건러도에 떨어지게되니 심정이 공연히 상하얏다 봉학이가 정의서온 신연하인을 묵혀가며 문짓문짓하고 떠나지아니하야 감사가 곳 떠나라고 날르니 봉학이는

「행차떠나신뒤에가겟습니다」 하고 말하얏다

「나는 교귀(交龜)해주고가자면얼마동안더잇서야겟스니너 만저가거라 편도부임하라시는 륵지(特旨)를 몰어가지고오래지체하는법이아니다」

「소인이 사또그늘을 떠나옵는것이 진정 어린아이 젓떨어지는것 갓소이다 소인을 경긔 작은골루 옴겨주실수업습니까」

「그건 내힘으로할수업는일이다 내지수령(內地守令)은변지(邊地)와 달러서 사오십 변권까지도 무변으론 나가지못하얏섯다」

「그런생각말고 정의가서 선치수령이 되어라 선치수령으로도 일홈이나면 혹 내지로 옴길수잇슬것이다」

감사말끄테 봉학이는 허리를 굽신하고 한동안 주저주저하다가

「계향이를 데리구가두 좃습니까」

하고 물으니 감사가우스며

「다리고가서치로해주려느냐」

하고 말하얏다 봉학이가 감사분부를 어기어려워서 감사보담 먼저도임길을 떠나는데 봉학이 자긔는 보교를타고 책방은 말을 태우고 계향이는 승교바탕을 태웟다 해남 관두량(館頭梁)에와서 배를타고 수로(水路)로 구백칠십리 제주를무사히 득달하야 목사(牧使)를 뵈온뒤에 다시 륙으로 일백삼십리 정의에와서 도임하얏다 일개사수(一箇射手)봉학이는 천여호(千餘戶)골의원님이되고 반신불수 계향이는 사지성한 안으서님이되엇는데 원님의직함은 즉과의교위 정의현감 겸 제주진 병마절제도위(果毅校尉旌義縣監濟州鎭兵馬節制都尉)요 안으서님의호칭은 곳 실내마님이엇다

謹 賀 新 年

江景

◉連山乘合貨物自働車部 朝運連山代行營業所

益山郡皇華面鳳洞 金基豊

論山 國一洋靴店

豆溪郵便所 所長 崔鍾仁

論山私立 新都普通學校長 林基昌

論山郡城東面定止里 盧奉植

論山郡夫赤面德坪里 安鍾正

益山郡皇華面麻田里 朴東來

論山郡 忠南道會議員 姜永植

論山麵子株式會社

市外新垈里 優良藥酒『挑源』釀造元 金善酒造場 電話一八六番

江景 土曜會

論山郡初等學校職員一同

江景中町 中央醫院 金碩坤

江景西町 明月館 主 金□默 電話一八八番 藝妓 金玉姬 成小月 李鶴仙 李一紅 鄭錦珠 沈東宣 吳春仙 吳小紅

江景黃金町 本報江景支局顧問 金鍾國

江景西町 總ゴム靴商 李康福商店 電話一六七番

江景錦町 金容奎

江景勞働組合 組合長 高宜煥 專務 朴鳳和 電話一七六

江景中町 光東洋靴店

江景中町 藥草唐草藥材直輸入商 延壽堂 主 裵榮繡 電話三三番

江景中町 內外國藥種貿易商 東一堂藥房 主 李雲泳

江景中町 山中洋靴店 主 崔鍾浩

論山郡農會

江景邑

江景中町 綢緞布木 朴順奎商店

江景大正町 九大고무工業所 主任 李榮雨 電話一四五番

江景中町 消防組組頭 高相俊

江景本町 金容漢 電話六四番

江景大正町 不二農場主任 竹尾□

江景本町 株式會社三益社 電話一二四番

江景西町 新化洋服店

江景西町 湖南病院 電話五〇番

江景黃金町 下二出張所主任 陳公洙

江景錦町 高橋精米所 電話二〇二番

江景黃金町 金鍾善齒術院

江景郵便局

江景西町 大塚醫院

江景中町 朝鮮產業株式會社 電話一〇五番

江景黃金町 李鍾和

市外新垈里 金東元精米所

益山郡望城面華山里 禹文三

成悅醫院 韓鳳雲

論山郡豆磨面夫南里 鄭昌先

益山郡皇華面安心里 白相泰

論山 天誠堂醫院 鄭海鳳

論山旭町 カフエー ライオン

市外堤內里 農村堤坪 金東先

黃金町 孟哲鎬

豐安面 金熙龍

論山『代書業』 金炳鉉

論山自働車運輸會社

海南

花山公立普通學校長 古賀八三夫

松旨公立普通學校長 本田又雄

馬山公立普通學校長 森隆介

三山公立普通學校長 瀨戶省吾

玉泉公立普通學校長 宮本來助

右水營公立普通學校長 堤田謙之

海南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達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北平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黃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黃山面事務所職員一同

花山面事務所職員一同

松旨面事務所職員一同

北平面事務所職員一同

花源面事務所職員一同

海南郡廳

海南警察署員一同

海南面海里 閔泳旭

黃山面松湖里 李喜鎔

海南邑內 南一車部 鄭世泰

花山面蓮谷里 姜聲坤

海南邑大町 司法代書人 竹森末藏

海南公醫 藥師寺破魔治

花山面海倉里 尹柱昣

右水營棉作駐在所 李昌奎

三山面院津里 李東華

黃山面富谷里 李丙浩

溪谷面星津里 金重玉

海南面長 鄭世卿

松旨郵便所長 田上寬次

三山面長 李浩敬

松旨金組理事 朴暻杓

부인

감기는 만병의 원인!! 예방은 이러케 합시다

외기에 접하지 안는 부분 갑자기 차게 하면 걸린다

감긔는 주한병갓치는 안치마는 사실은 만병의원인이될위험이잇는소홀이여겨서는안될병입니다 감긔에걸리면속히치료를하야감긔가심해지기컨에 고칠필요가 잇는것은 물론이나 우리는 감긔에 걸리지안토록 미리 예방할필요가 잇는것도 다시말할 필요가 업습니다。 그러면 엇더케하면 감긔에걸리지 안토록 할수잇는가? 감긔에걸리지안토록 예방을할려면먼저 감긔에대하야 그성질을 잘알지안흐면 안되겟습니다

◇「감긔」(感氣) 라고하야 긔(氣)에 감(感)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말이냐하면 찬긔운에 걸린다는 뜻이라고 볼수잇습니다。 찬긔운에 걸린다는것은 말이좀 어색하지마는 일본말로 「가제오히꾸」라든가 또는 영어로도 감긔라는것은 다 이러한 뜻―즉 바람 혹은찬긔운에 걸렷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찬긔운은 어듸로들어오는가하면 사람에 따라서 또는 때에다라서 일정하지안치마는 코(鼻)로 들어올때도잇고 인후(咽喉)로들어올때도잇고 또는 목으로 어떤때는 발로 들어오는때도잇습니다。 구두를 벗는 순간에 감긔에 걸리는때도 잇다고합니다

◇그런까닭에 감긔는 여하간 추우면 걸리는것이라고 생각하기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것만도 아니니 암만추운데 나가잇어서 그러케 쉽게 감긔에 걸리는것은 아닙니다 도리어별로 춥지안흔데 서도리어 감긔에 길리는수가 만습니다 이러케쉽게 감긔에걸리게되는것은 신체의 어떤일부분만이 차저서 걸리는경우가만습니다。 그러고 감긔는터운데잇다가 갑자기 찬공긔를 접할때에 걸리기 쉬운것입니다。

◇몸의어떤 일부분이 찬공긔에접할때에 감긔에 걸이기쉽다는것은 우에말슴한바와 갓습니다마는 가튼몸의 일부분이라고할지라도 얼굴이나손이나항상 외긔(外氣)에 접하는 부분은웬만한 찬공긔에 접하여도 감긔에 걸리는 위험성이 비교적 적지마는 어깨(肩) 나가타 외부에접하는 긔회가 적든부분이 찬공긔에 접하야식게되면 감긔에 걸리는경우가만습니다

◇그런까닭에 감긔에걸리지안키위하야우리가 특히주의할것은밧게나갈때는 밤에잘때에나 항상은 외긔에 접하지 안는신체의부분을 시키지안토록주의할것은물론이나 또한가지주의할것은 웬만한 추위 에도 감긔에 걸리지 안도록 피부를 미리부터 튼튼이해둘필요가 잇는것입니다 전신의 피부를 튼튼히 하기위하야는 마찰、랭수욕등을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마는 여긔서특히 말슴드리고저하는 또한 실지로 실행하기쉽다고생각하는것은 추위를 당하여도 추위를무서워 하지안는맘을가질것과 옷을두텁게입지안코 엷게 입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은극히간단한것이나 이것을 실행하고 안하는데 따라서 감긔를이길수도잇고 감긔에포려가될수도잇는줄압니다

少年小說 새벽별 15

누이 (2)

田榮澤

지난해봄 진달네꼿이한참필적입니다 명찬은 늘집안구석에만 백여잇는것이 갑갑하기도하려니와 학교에는 못다녀도 회당에라도다녀서 저도 남과가티 사람노릇을해보리라 하는생각이 잇든차에 마츰윤찬이 학교에갓다와서 권하기를 이번주일에 회당에서는느라곡산으로가서 야외례배를보는데 떡자미잇게들 놀모양이라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또 마츰 졸업하고 들어안저든양선달네날 예분이가 아이를보내、가치가자고 하기때문에 명찬은 밧잠을 안자고 옷을 준비해가지고 따라갓슴니다 남들은 점심을 잘채려가지고가는것을그냥가서 조마조마한마음에한못동에서서구경하다가채 마치기컨에 일즉도라가는때는에서 어떤아이를만나서 아버지와 옵바가 성이단단이나서 명찬이 도라오기만기다린다는 말을듯고 무서워서 집으로바루가지못하고 뒷산으로가서형편만보고잇섯습니다

오전에는 일기가 썩조왓스나 오후에는 갑재기 날세가 변하야 금시에하날에는 거문구름이 잔득 밀려와서 사방이캄캄해지고난데업는돌개바람이 모래며몬지를 휩쓰려가지고 모라오는통에 눈을뜰수가 업섯습니다 그날 아츰에는떡 따뜻햇고 또덥기도해서 옷을 변변이 못닙고나왓기때무에추워서 움추리고안저잇섯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픈줄도몰낫스나 아츰도먹은체만하고점심도못먹고햇는데 차차날이 저물어오니까 시장증이나기를 시작햇습니다 그런데그야말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비가쏘다젓습니다 명찬은엽헤잇든 솔나무미트로 피신을하노라햇스나 여전이 온몸에비를마저서 옷이홈박저즈니 마치물에빠진생쥐처럼되여서 팔다리를 덜덜덜덜 떨고잇섯습니다。

배는점점고프고 춥기는한데 비는 그냥주룩주룩오고 날은 저물어서 차차침침해오니 어찌참을수잇스랴 명찬은 엉이엉이소리처울기를시작햇습니다 그리고 매마저죽어도 집에서죽게 내려가리라고하고 툭툭털며 이러날라고하는데 산미테서 터덕터덕하는 발자국 소리 씨걸씨걸하는숨소리가 들녓습니다 옵바나아부지나 아닌가하야 명찬은얼는 솔나무포기뒤에 숨엇습니다。 옴쿠리고 숨소리도못내고잇는데

「누이 누이 나야나야!」

하는것은 윤찬이엇습니다。

명찬은 너머반가와 뛰여내려가서 동생을 꽉끌어안엇습니다。 윤찬은미테서 올나오면서 누이의 우는소리를 드릿고 또그러케제게안기는양、그리고 비맛고떠는꼴을보니 기가매키어서 아모말도못하고울기를시작하니、두사람은 서로붓잡고 그냥작구울엇습니다。

울다가 명찬은 이러케 물엇습니다。

「집에 들어 갓다왓니 윤찬아」

「동무들하고 놀다가 인제야 집엘 들어가니깐 누이웨아니오느냐 뭇기에 모른다고햇더니 날더러 누이를 살살꾀여가지고나갓다고 장작개피를 갈기겟지 그래 막도망해서 누이가 어떠케됏나하고 차저왓지 필경여기 왓슬술알고」

하고 원망스러운듯이 동리편을내려다봅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먹다남은 옥수수사탕을 끄내서명찬을주엇습니다 그것을한알갱이먹으니 더욱 배고픈생각이나는지라 두사람은 솔나무가지꼬두매기도뜨더먹고 찰냉이도 캐먹고 잇다가 깜깜 어두어서야 어머니가 순길이하고 회불놓잡고 올나와서내려갓습니다。 마츰아부지와 형은 상가집에가고업서서 그날은무사이 잣습니다。 윤찬은 언제나 누이를 생각하면 그때의모양이 눈에선하나 보인답니다。

八歲의天才피아니스트

최근 「뉴―욕」 시의악단에서 굉장하인기를끌고 잇는 금년여덟살되는 천재적 피아니스트「루―스•스렝크진스키―」양은 「쇼팡」「베―토―벤」의 그어려운 곡목을 아주 손쉽게친다합니다 과거 三년동안 구라파를 순회햇기때문에 구라파사람들도 이 어린애를 잘안다합니다

新春懸賞 童謠童話 選後感

◇應募한 童話의수는 컨부합해서 쉰아홉편인데 이것은 例年에比하면 결코적은수가아니다。장래우리사회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精神的糧食을주는 兒童文學이 흥성해가고 이에關心을가지는이가 만하지는것은 깃분일이다。이제 오십구편의작품을 읽는사이에 느낀바 所感을 한두가지말하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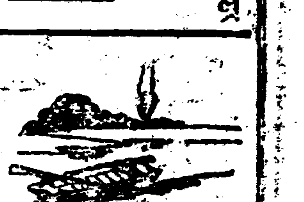
◇應募作品 컨체를通하야 一般的傾向이라고 볼수잇는것은 童話가 實話童話、冒險童話의 域을떠나서 어린이의環境과現實生活을잇는그대로 그리는寫實主義로 變하는것이다 그러고 그것은朝鮮兒童의現實生活을 그리는것인까닭에 貧寒한朝鮮의 父母가工場에서農場에서시달리고 고생하는것을보는 兒童이 그父母를 시달리게하고 生活을협박하고잇는 그무엇에대하야반항하는 心理가 나타나잇다 如何間童話가 事實主義로 나가는것은 새로운한現象이라고볼수잇다고 생각하엿다

◇그러나 童話는 結局은兒童이 재미잇게 읽어야할 이야기다。그런까닭에 朝鮮兒童의 現實生活과 環境을 背景으로하는 이야기라도 그것이 兒童의心理에 適合하고 兒童의想像力을 滿足시키고 재미잇게읽을수잇서야만 할것인데이번應募한 作品의 大部分이 재미잇게읽을만한것이 극히적다。 그러고 童話는 兒童의讀物인까닭에 用語도 어린이가읽을것이라고 注意해서 그大部分은 用語가어렵다 構成에 잇서서나 用語에잇서서나 어린이의 讀物이라는것을 一時라도念頭에서떠나지안토록 할必要가잇지안흘가하고 생각하엿다。그러고 童話쓰는사람은 무엇보다兒童의心理를 잘硏究하지안으면안될줄안다

◇應募作品中에는 「독갑이」이가나오고 「실과를 먹고 버레가 말을하게되엇다」는 것等造化가잇는것이 잇스나그런것은 取擇하지안햇다。

故鄕 (39)

李箕永 作 安夕影 畵



七、출세담(出世談)

그러나안승학의 치부에대하여는 여러가지 풍설이 만타。그가 지금은 사음도보고、취리(貸金業)도하지마는、덧해컨까지도 다순히 하급의월급쟁활을 하고잇슴에 불과하엿다 월급이라는것은 빤―한것이안인가。그것으로 의식은 족할는지모르나、저축까지한다는것은 의문이엿다。월급는 장사와갓지안키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아마 뢰물을 만히 먹은 것이라는 소문도잇고、또는 토지조사임시에、은결(隱結)로 숨은땅을 누구와협잡해서、나중에 자긔땅으로도 돌녀첫다는 말도잇다 또한 그는 첩을 만히 어더서 살엇기때문에、엇든 돈만흔여자를 어더살다가 그여자의 돈을빼서서 땅을산것이아닌가하는 추칙도잇스나、이것은 컨연히 무근한 풍설에지나지안엇다。그러타면 엇든과부부자나、어덧서야할러인데、그는 과부라고는 어더본적이엇다――남의유부녀를 떼드리기는 비밀비재엿지마는――이렛든지、저렛든지、그때 시절로서는、족히 잇슴즉한 일이엇다。그시절에 우연 만치뚝뚝하고、장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잇는 사람이라면、레박게안저서도、돈버리를 상당히 할수가잇섯다。장사를해도그러코、농사를지여도 그러코、하다못해 노름판을조처단여도 그랫섯다。

농민들은、묘목(苗木)갑이 비싸다고、산을 만히내버럿다。도처에 미간지와 진펄이잇섯다。화자씨에도 조회가 부렷다。역둔토는 연부(年賦)로불하(拂下)를하엿다。

이런것을 일일히 주서쓰자면 한이업슬레니 고만두자。

――뉴선달은 대서를해서 부자가 되엿다。장거리잇는 권상컴은 포목상을 보아서 돈을모앗다。그외에도、운송점을해서 치부한사람――음식점을 보아서 치부한사람――대금업(貸金業)을해서 치부한사람세바다어살든 조선사람도 이러캐되엿스니 약바른 외국사람들은 더말할것도 업지안은가 광목자토락히와 물감동을걸머지고 촌촌으로 도라단이든 땅녕이천인 왕가와 장거리에서사탕늘을 한곱부식 파려시어린애들의 코무든 동전푼을 일녀 먹든 일인 중촌(中村)이는 지금 수십만원의 거부가된판이엿다。

그러면、그뿐는 다、어듸서 나와든가?……그들은 모다、주머니를 겯우엇다。이지방은 자래도 유수한「곡향」이라、생산물의대부분은、농산물이엿든 때문이다。

이럿거나、저럿거나、안승학은 다행히 이통에 한미천을 잡앗다。그래서、원거하든 누구누구하는 부자들은 인천미두로망하고、청료리로망하고、×갈보통에 망하고、모조리망해가는데、그의형세는 점점불일듯하엿다 그는 부농가(富農家)에서 농우(農牛)를개비하듯 첩을 해마다 갈아드리고 호의호식을하면서도 독가비세간처럼 형세는느러갓다

그래서 무릿등가티 한미하든사람이 오날은거액의(略)자요○○학교○○위원이요 금릉조합 ○○의원이요 ○○장이요○○사정사원이요 권군주사요 또!또!또……무엇무엇이엿다

이만하면 흥룡하지안은가?

그는 금레안경을 쓰고 때때로 후로꼬―트와 중산모의 레복을차리고 뽐내엿다 그는 아주훌륭한 시체량반이되엿다

그래서、그컨에는 자긔가 고개를 숙이든 사람들이、지금은 도로혀 자긔에게 고개를 숙이엿다 승학이가、서울사는 민판서집 사음을어더한뒤로부터그의호긔는한층더놉핫다

그가 민판서집 마름을 운동한 내막에도 적지안은 맥락이 숨어잇섯다。백성을 다루든 그의 신릴한수완은 마참내 성공하고말엇든것이다。

어느해여름에――암내에 큰홍수가저서、민판서집권장이 만히상햇슬내、민판서는 친히、농장시찰을 내려왓섯다。이긔미를 미리、아러차린 안승학은 엇든 소작인을짜고、엇더케삶엇든지뜬돈하기로유명짜한민판서도그의수작에넘어가고마릿다

그는 한엽호로 미인계를쓰고、이간책을쓰고 가진음모를 다꿔며서、그컨사음을 중상하엿다。그미인계에、지금다리고 사는 숙자가、중대한 역할(役割)을 햇다는데、인놈이보잘것 업는 숙자를 내버리지안코、도리혀 그손아귀에 쥐여지내는것은、그때죄악이 폭로될가 무서워하는 비밀이잇다는쉬!쉬!하는 소문이잇다기도한다

돌둑이의 설노리

李□洪

(紹介篇)

謹賀新年

陝川

陝川郡廳

陝川郡教育會

陝川郡公立普通學校長一同

慶南陝川 陝川警察署職員一同

慶南陝川
陝川面職員一同
大陽面職員一同
雙栢面職員一同
三嘉面職員一同
佳會面職員一同
大並面職員一同
鳳山面職員一同
妙山面職員一同
冶爐面職員一同
粟谷面職員一同
龍洲面職員一同

慶南陝川 道會議員 李景祥

慶南陝川 陝川醫院 醫學士 崔祥旭

陝川郡鳳山面述谷里 鑛業家 金成昌

慶南陝川郡雙栢面 土地改良事業 企業家 裵鳳乙

慶南陝川邑西山里 李光洙

慶南陝川 山淸郡松景金鑛鑛主 朴昌雨

陝川郡雙栢面 鄭鉉庸

慶南陝川 布木商 李聖奎

慶南陝川 煙草專賣局陝川販賣所 古谷 孫車獻

慶南陝川 陝川産業組合理事 徐有聲

慶南陝川 司法代書 李文基

慶南陝川 合名會社 川昌商會 李源鎔

慶南陝川 李昌弘

陝川郡大並面 文仕安

鄭泰燮

陝川郡三嘉 三和商會 李民佐

陝川郡三嘉 陝川産業組合三嘉配給所 全永杓

陝川郡三嘉 三嘉金融組合

陝川郡三嘉 曺基淳

陝川郡三嘉 雜貨商 田成大

草溪

陝川郡草溪 草溪協同組合

陝川郡草溪 司法代書人 山崎市太郞

陝川郡草溪 司法代書人 南相直

陝川郡草溪 回生醫院 金永浩

赤中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靑德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陝川郡草溪 溪山精米所 李享甲

草溪面事務所職員一同

陝川郡草溪 草溪酒類釀造場 崔鳳根

草溪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草溪金融組合職員一同

陝川郡赤中面 赤中面事務所職員一同

陝川郡赤中面 赤中酒造場 金判道

陝川郡靑德面 靑德面事務所職員一同

謹賀新年

倭館

倭館醫院
公醫 金顯文
代診員 白泰興
調劑員 黃昌植
(電話二九番)

漆谷郡廳職員一同 (電話一〇番)

倭館警察署職員一同 (電話四番)

倭館穀物商組合 (電話一九番)

慶北漆谷郡倭館面梅院洞 李萬煥

慶北倭館
鮮一雜貨店 主 文達坤
鮮一洋服店 主 裵元煥

京釜線倭館驛前 ㊁荷主組運送店 主 鄭福景 電話二七番 振替釜山六五九四番

倭館酒造組合 電話八番

漆谷郡枝川面新洞 金秉業

慶北倭館 米穀肥料 尹哲炳商店 電話一三番

慶北倭館 道議員 入山昇 電話一一番

慶北倭館 海岡印刷所 主 李綱鎭

慶北若木 若泉酒造場

京釜線倭館驛前 綢緞布木商 李鍾律商店

倭館宿屋兼飮食店組合

慶北漆谷郡若木 李海哲

學校評議員 穀物商組合長 崔應天

南一精米所 (電話一六番)

米穀商 蔡允植

倭館 米穀商 三共商店

米穀商 朴魯源 電話三〇番

漆谷郡石積面牙谷 牙谷酒造場 李元燁

倭館面長 朴熺準 外職員一同

石積面長 張敏植 外職員一同

架山面長 金鎭球 外職員一同

枝川面長 李承弼 外職員一同

仁同面長 張世韓 外職員一同

漆谷面長 柳河秀 外職員一同

東明面長 李相龜 外職員一同

北三面長 張世華 外職員一同

若木面長 申鉉九

倭館金融倉庫株式會社 (電話一八番)

倭館金融組合 理事 宮本庸三 (電話二二番)

郵便所長 佐藤獅子人

米穀檢査所長 鶴丸有吉

若木金融組合 理事 金永漢

漆谷郡仁同面仁義洞六三七 張宓相

漆谷酒製場 蘇鎭浩

倭館驛前 大邱理髮館 李質壽

倭館驛前 日新理髮館 朴孝大

京釜線若木驛前 公醫 林宇一

慶北倭館 金壬述

料理屋 鶴乃家 (電話一五番)

倭館煙草販賣所長 國弘治平 (電話一六番)

漆谷郡若木面觀湖洞 張龍俊

倭館荷物自動車組合

倭館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電話一四番)

精米業 李昌燁

慶北漆谷郡倭館面平章洞 鄭晩植

漆谷郡若木面觀湖洞 崔鳳俊

東明酒造場 李琛一 曺圭燮

倭館面協議員 林錫培

慶北漆谷郡新洞驛前 婦人商會 主 李民龍

雜貨食料品 海産物委托業 曹文昌

慶北倭館 穀物商 裵準共 盧東華

倭館驛前 朝日土管工場 主 朴在同

漆谷郡北三面崇烏洞 安相泰

倭館驛前 山本材木店

京釜線倭館 雜貨商 湯淺商店

倭館尋常高等小學校長 金子嚴基

綢緞布木商 權道鉉

綢緞布木商 孫寶敬

綢緞布木商 金文吉

慶北倭館 醫生 蘇鎭遠

中華料理 天增祥 主 徐增明

倭館 司法代書人 趙東淑

精米業 黃聖道

金物商 吉田支店 主 陳洪根

倭館驛長 正分淸一

新明洞公立普通學校 畑添久一郎

倭館砂防事務所 主任 渡邊潔

漆谷郡若木市場 綢緞布木商 吳俊基

漆谷公立普通學校

慶北倭館 李相祜

新洞酒造場

長淵

長淵郡廳友會

長淵郡龍淵面職員一同

長淵郡大救面職員一同

長淵郡大救面 面長 金光濬

長淵邑內 新興藥房 主 金鳳鎬

長淵邑內 宋聖鳳

長淵邑內 長樂園 主 王孔三

大救面松川市 醫師 林正燮

長淵邑內 春香園 主 許維新

長淵邑內 德盛自轉車店 主 姜聖龍

夢金浦 海安面 面長 李升默

長淵邑內 長淵郵便所 所長 矢倉敏二郎

長淵邑內 吳商會 主 吳成根

長淵邑內 朴遠植醫院

長淵邑內 海西醫院 院長 徐徹冕

長淵邑內 三一商會

夢金浦 醫師 全守吉

裡里

漢城館 主 郭基奉 電話五一番

皇華面皇華亭里 尹圻重

金馬面箕陽里 面協議員 學務委員 趙仁元 長子 炳坤

朝鮮湖南線裡里本町 朝鮮料理 甲種山海館 電話一六三番

裡里本町 中和堂藥房 李祀魯

裡里公立普通學校

柳江里 金允植

裡里京町 産婆 金河蓮

裡里京町 金顯昇 電話一〇二番

三山醫院 院長 金炳洙 電話一五二番

柳江里 金炳天

五山面五山里 文鏞禧

五山面木川里 金鉄斗

五山面事務所 職員一同

五山面警察官駐在所 全羅北道巡 韓相玉

北一面萬石里 鄭鎭洙

北一面玄水里 李敬澤

八峯面 蘇鎭文

春浦面信洞里 姜公熙

柳江里 金寅植

柳江里 金漢基

金馬面東古都里 李載正

全羅北道指定測量事務所 玉光彬

裡里旭町 司法代書人 金弘植

裡里旭町 司法代書人 金容植

黃登驛前 金南植

黃登驛前 朴智根

康津

康津旭町釀酒所 金安植

康津郡廳

康津面長 金忠植 面職員一同

康津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康津本町 洪載醫院 長 洪載裕

大口面長 李相和

康津旭町 康津醫院 金鍾燮

兵營城南里 延壽堂醫院 金在大

兵營面長 金容喜

靈巖邑內 齒科 裵萬祚

靈巖邑內 濟岩面長 尹在悅

康津旭町 精文堂印刷所 金在鉉

康津旭町 昌濟醫院 李昌徽

靈巖郡鄕校直長 郭泰玉

康津旭町 金剛屋 金珉洪

康津旭町 染料商店 朴士圭

康津旭町 永興商會 金在玫

康津西城里 金犀炫

牙山

溫陽溫泉 ㊅大昌運送店 主 尹河英

松岳面 李用勳

排芳面 姜泰化

仙掌 穀物商 李聖雨

仙掌 穀物繩叺肥料官鹽商 小宮覺一

道高溫泉 松岡八千代

溫陽邑內 金龜壽

溫陽邑內 金潤根

屯浦面市浦里 林在和

屯浦 尹境善

屯浦面新項里 尹致昞

屯浦 韋基浩

屯浦面松容里 李範秀

屯浦面雲龍里 鄭夏錫

屯浦面石谷里 韓勝愚

屯浦 崔弘閏

屯浦 鄭疇洪

溫陽面事務所 面長 尹政善 會計 尹協重

松岳面事務所 面長 李璟烈 職員一同

湯井面事務所 職員一同

新昌面事務所 朴濟英

仙掌面事務所 權仁釆

排芳面事務所 面長 孟容淳

排芳面事務所 會計 李奎元 書記 郭世鏞 書記 李康錄

屯浦面事務所 職員一同

道高面事務所 面長 李萬鍾 會計 李鳳宰 書記 蔡禧錫 同 權宗澔 同 林容禹 同 朴福永 同 朴相勳 技手 崔俊永

溫陽溫泉 鮮一旅館 主 朴珠玉

溫陽溫泉 司法代書 李寅永 司法代書 姜泰敬

溫陽溫泉 司法代書 朴寅和 司法代書 金周成

溫陽溫泉 回生醫院

溫陽溫泉 金奉龍自轉車店

溫陽溫泉 朝鮮料理 太陽館

溫陽溫泉 中華料理 東聚恒

衡平社支部

溫陽溫泉 文化堂商會本店 電話五五番 振替京城二一一九六

支店禮山邑內 電話三七番

謹賀新年

瑞山
瑞山郡廳

瑞山郡公立學校長一同

忠南瑞山
㊂瑞山運送店
柴田藤市
電話瑞山三六番

忠南瑞山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서울고무工業社
特約販賣 韓百熙商店
振替京城一九二二五番

忠南瑞山
內科外科 小兒科 花柳病科
常春醫院
院長 洪憙裕
朝鮮日報社瑞山支局顧問

忠南瑞山
司法代書 朴熙生
朝鮮日報社瑞山支局顧問

忠南瑞山
司法代書 田泳奭
朝鮮日報社瑞山支局顧問
電話瑞山一七番

忠南瑞山
高麗人蔘 各種砂器 日用金物
開城特産商會
主 趙元孫

和洋金物 農具一式
瑞山金物商會
主 李廣龍

瑞山郡內面事務所

忠南瑞山
泰安商會專務理事
韓東璧
朝鮮日報社瑞山支局顧問

忠南海美
B、G、牧園
B、G、洋服店
主 李殷鎬

忠南海美
海美搗鑛所

瑞山郡
泰安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南泰安
泰安商會
金融部 商品部 自動車部

泰安金融組合
理事 山下達雄
外職員一同

忠南瑞山
朝鮮料理 富城館
電話瑞山三〇番

忠南瑞山
朝鮮料理 明月館本店
明月館海美支店

忠南瑞山
國安金山鑛業部

忠南瑞山
忠清南道會議員 曺秉哲

忠南瑞山
司法代書 尹舜用

忠南瑞山
執達吏事務所長 大野久一

忠南瑞山
日本生命 柳聖植

忠南瑞山
華陽寫眞館
同 泰安支店
主 金炳權
朝鮮日報社瑞山支分局寫眞班記者

忠南瑞山
共榮寫眞館
朝鮮日報社瑞山支局寫眞班記者
主 尹道俊

忠南瑞山郡仁旨面
仁旨釀造場
主 曺成男

瑞山郡浮石面
面長 李憲敎
外職員一同

浮石 李基昌

喪中欠禮
浮石 柳璟植

忠南海美
海美釀造場

瑞山郡
海美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南海美
海美金山

瑞山郡
余美普校訓導一同

瑞山郡音岩面塔谷里
林鳳祿

瑞山郡音岩面濟堂里
精米業 久保浩太郎

岩音 李種泰

岩音 李澤原

瑞山郡
聖淵釀造場
主 朴容達

忠南瑞山
川瀨渡

忠南瑞山
時計眼鏡 貴金屬 蓄音器 レコード 電器具
禮興時計店
主 李玟錫

忠南瑞山
シンガー裁縫會社瑞山分店
主任 [illegible]

忠南瑞山
上島商店
電話瑞山一三番

忠南瑞山
川端商店
電話瑞山三一番

忠南瑞山
瑞山消費組合
電話瑞山二七番

忠南瑞山
綿絲布木 和洋雜貨
李完福商店
振替京城一一〇七七番

忠南瑞山
綢緞布木 和洋雜貨 煙草販賣
金泰興商店

忠南瑞山
京南理髮館
主 鄭琬好

忠南瑞山
瑞山麯子組合
電話二六番

忠南瑞山
瑞山釀造場
主 孫昌憲

忠南瑞山
司法代書 金谷若太郞
電話瑞山一六番

忠南瑞山
瑞山印刷所
朝鮮日報社瑞山支局顧問 主 朴友性
電話瑞山二二番

忠南瑞山
藤井酒造店

瑞山普校訓導一同

唐陽自動車組合

忠南瑞山
朝鮮日報社瑞山支局顧問
司法代書 李相勳

瑞寧金融組合
職員一同

瑞山郡
高北面

大山釀造場
金東潤

八峯有志
金明中

音岩
崔斗鏞

泰安普校訓導一同

忠南泰安郵便所
藤戶次郎

泰安
至誠醫院
院長 鄭夏鎔

忠南泰安
李時雨

忠南泰安
白南復

忠南泰安
金興泰

煙草泰安販賣所
所長 秋枝稔助
崔九容

忠南泰安
司法代書 李華鶴

忠南泰安
司法代書 金應濟

忠南泰安
尹源淑

忠南泰城
金圭恒

忠南泰安
李弘益商店

忠南泰安
朴東權商店

忠南泰安
元範商會

瑞山郡梨北面事務所
面長 金東瓚
外職員一同

瑞山郡梨北面浦地里
梨北釀造場
主 趙泰鎬

瑞山郡遠北面事務所
面長 崔永儀
外職員一同

瑞山郡遠北面防山里
文琫鎬

鎭南浦

滿洲製粉株式會社
取締役鎭南浦工場長
鈴木孝太郎

鎭南浦
物産客主組合
電話二六一番

府港町
西鮮米穀株式會社
電話八一八・八二八番

鎭南浦府碑石里
府會議員 尹基元
電話一四九番

鎭南浦府後浦里
穀物委託賣買 合資會社
一基商店
電話八〇六番

鎭南浦碑石里
江南齒科醫院
院長 李鎬坤

鎭南浦碑石里
大同藥房本舖
李謙善
電話四五四

鎭南浦三和券番

鎭南浦府後浦里
常春館
電話五一〇番

鎭南浦府碑石里
天陽醫院南浦寫眞館
電話七一二番

會員組織
鎭南浦米穀取引店

鎭南浦龍前
合資會社
荷主運輸組
代表 李熙泰
電話一四五番

鎭南浦府座

鎭南浦府龍井里
三和組
海陸運輸請負
組長 姜俊植
電話一二八番 一六六番 三三五番 四二六番
電略 [illegible]又キヨウ

日本鑛業株式會社
金銀銅 鉛鑛石 買鑛並製錬業
鎭南浦製錬所
電話三四番 四三番

鎭南浦果物興業株式會社
電話六三四番
販締役社長 金志侃
專務取締役 朴璇齊

鎭南浦碑石里
三和醫院
醫師 金養植
電話五〇九番

鎭南浦碑石里
三成精米所
李鍾燮

鎭南浦後浦里
朝鮮料理 明月館
徐相熙
電話三四九番

鎭南浦漢頭里
穀物貿易
英德號
成弼英
電話七四二番

鎭南浦龍井里
龍井醫院
醫師 李顯柱
電話五四四番

鎭南浦三和町
永林材木商會
電話五六八番

鎭南浦齒科專門
文化醫院
京城齒科醫學士 柳成璉

鎭南浦碑石里
海東醫院
醫師 林鎭海
電話六五八番

鎭南浦碑石里
鮮一旅館
鄭裕善

鎭南浦三和町
白雲洋服店
白亨濟
電話一四四番

鎭南浦三和町
三和印刷所
金貞錫

鎭南浦龍井町
鮮明印刷所
電話五五一番

鎭南浦碑石里
西[illegible]醫院
徐最雲

鎭南浦後浦里
安一旅館
安浩
電話六五六

鎭南浦[illegible]浦里
司法代書業 玄基璇

鎭南浦明峽町
原木松丸太新炭
仁山木材商會

鎭南浦碑石里
三成洋靴店
桂學謙

鎭南浦府外
文化果樹園
朴文爀

鎭南浦三崇普通學校
電話七一四番

鎭南浦龍井町
綿絲布 羅紗 既製服店
金井商會
電話八三五番

鎭南浦龍井里市場通
松丸太及新炭穀物 土器砂器 委託小賣
三和商會
金得河
電話八四四番

鎭南浦得信學校

鎭南浦府三和町
金殷玉木材商店
電話五五八番

鎭南浦府三和町
◎取引店
柳良植
電話五五六 七四三番

鎭南浦警察署
職員一同

鎭南浦碑石里
白南薰商店
電話五四六番

鎭南浦明峽町
新炭商
朱應煥
白榮均
電話八五三番

鎭南浦後浦里
百貨 萬貨昌
電話二六六番

鎭南浦龍井里
高務商會
高泰和

鎭南浦漢頭里
吉善精米所
電話長八一〇番

鎭南浦府後浦里
濟衆醫院
黃潤

平安道立鎭南浦醫院職員一同

鎭南浦仲介組合
電話一三五番

鎭南浦明峽町郵便局後側
東和材木商
李東稷
電話一九番

鎭南浦
商工會議所

鎭南浦府碑石里
關西旅館
趙處三

鎭南浦府碑石里
鮮人貸座敷組合
電話七〇五番

鎭南浦大倉町
米穀賣買斡旋業
仲立社
李鍾勳
電話二二四番

鎭南浦碑石里
林昌夏

鎭南浦獸肉販賣
營業組合
組合長 孔得俊

鎭南浦碑石里
司法代書人 林道根

鎭南浦碑石里
甲子號
電話六〇二番

鎭南浦龍井里
司法代書人 李鍾浩
電話四四八番

鎭南浦後浦里
穀物委托
安山旅館
金弼武
電話三四四番

鎭南浦碑石里
李致興蕎麥精米所
電話二八番

鎭南浦後浦里
古物商 金斗玉

鎭南浦漢頭里
穀物貿易及委託業
信一商會
電話五四七番

鎭南浦碑石里
張貨物自動車部
張剛善
電話七一六番

尹致權

鎭南浦龍井里
成昌洋靴店
崔鳳仁

鎭南浦龍井里
三和洋靴店
李貞涉
郭永守
電話八三三

鎭南浦龍井里
合同洋靴店
石根培
金能元

鎭南浦碑石里
平安職工洋靴店
盧正奎

鎭南浦龍井市場
果物靑物委托賣買
李禮燦

鎭南浦明峽町
薪炭商店
李炳燁

鎭南浦三和町
穀物材木 新炭魚鹽 委托販賣
昌聲商會
金昌俊
金際俊

鎭南浦碑石里
高應三

鎭南浦龍井里
魯起元

鎭南浦三和町
三益材木商會
電話六二六

鎭南浦龍井里
司法代書業 高弼寬
電話一〇一番

鎭南浦勞働組合
電話三四七

鎭南浦加藤精米所

朝鮮米穀倉庫株式會社
鎭南浦支店
支店長 吉田基

鎭南浦龍井里
信一合名會社
代表社員 林祐敎
支配人 馬勳坤
電話二二一

一月一日에大火 全燒四棟、半燒三棟 正租四十石燒失

【河陽】경산군와촌면대동리(瓦村面大同里)정권표(鄭權杓)의집 나무가리에서 불이니러나서 동리집네채를 다태우고그리옹세채는 반만태우고 나락사십여석과 가장집물을 태워버리고 약두시간뒤에 겨우진화 하엿는데 그날은마침 일월일일이엿다한다

불작난으로 醴泉에火災

【醴泉】지난이일오후한시사십분경에 례천군례천면로상동황룡리(醴泉郡醴泉面路上洞黃龍伊)라하는집나무가리에불이이러나서그이웃배성옥(裵聖玉)의집까지연소되자때마침심한바람이불어오는 북풍에맹렬이 다오르는불길은것잡을수업슴으로한참동안은 아주위험한상태에 빠젓섯스나 다행이례천소방조의 맹활동으로 겨우동세시반가량에 진화시켯는데 불난원인은 전긔황룡이라는사람의 집 행랑채에잇는 여섯살된어린아이의 불작란으로그와가티 큰불을 이르킨것이라한다

元山도大火 四戸를全半燒

【元山】사일새벽다섯시반경에 시내명석동(銘石洞)이백삼십오번지에잇는 그리가마 공장(前鐵釜工場)빈집속에서돌연발화하야 동가를삼시간에 전소하는동시 린접한삼호의 가옥을연소하고 겨우한시간후에 진화하엿다는바 전긔빈집은 시내대성상회(大成商會)소유로이천원의화재보험에 가입되엿다하며 백평이나 거의되는건물이 재만남어서 구한국시대의 옥사(獄舍)이던터전만남어잇다한다

早婚을不肯코 自殺로서對應 二八處女、鐵路에投身

【牙山】새해들마진지 불과사일되든날 첫새벽에 온양온천(溫陽溫泉)에서는 이딸이 날치한처녀의 철도자살 사건이발생되엿다 자살한처녀는 주소를온양온천에둔 박상민(朴相敏)(假名)의 매제(妹弟)박영숙(朴榮淑)(假名)(一七)이란꼿다운 처녀로 그는혼인날이 압호로삼일을격하엿슴에도 불구하고 지난삼일 오후팔시경에 무단히나가서 그와가티 자살하엿다는데 자살한 원인은 조혼(早婚)의페풍을 철저히 업새고 또한그부모가결정한결혼을 반대하기 위하야그와가티 자살하얏다는것으로도 자살한형장에는 다음과 가티유서가 잇섯다한다

父母님에對하야서는 不孝라고 生覺하엿지마는저는 도저히이번結婚에 對하야서는 絶對로실엿슴니다 그러나안가면여러집食口의 구박이잇슬것이고 가자니실여더만平和한길은죽엄밧게업는것을깨달앗슴니다 저를絶對로미워하서지마르세요 저는제발朝鮮의그早婚이란 페풍이업서지기를바람니다

술주정하다가 指名窃盜發覺

【長箭】작년십이월삼십일새벽세시경에 외금강장전항 김성원(金聖元)의 집에는 작부(酌婦)를 마음껏 롱락하며술먹든한사람이 잇섯는데나종에는술갑삼원구십전을 내지아니하고주인과 싸호려다가 당지경찰의눈에띄여 류치처분까지 당하게되자 불의에지명절도용의범(指名竊盜容疑犯)으로 판명되엿다 그는 원적을 충북괴산군괴산면산수동(忠北槐山郡槐山面山水洞)에둔정인서(鄭寅瑞)(三六)으로서일전에 원산부교하동(元山府橋下洞)에잇슬때 절도혐의로 수배중이든자로서 원산경찰서에서 삼년을맛다 불일내원산경찰서로 압송하리라는데 그는전에도 절도전과일범의 죄상이잇섯든자이라고한다

崔尙鉉氏葬儀 學校葬으로擧行

【江華】긔보=강화합일학교 교장최상현(崔尙鉉)씨의 장의는 긔보한바와가티 지난삼일강화합일학교교장으로 집행하게되바 리익모(李益模)감리사의주례로 삼일오전아홉시 동교교정에서 집행하얏는바 삼백여명의 합일학교 학생은 일제히상복을 입어 일반의주목을 끄럿스며래빈으로는 강화군수조중현(趙重顯)씨를 비롯하야 인천 경성방면으로부터의 친지가 참석하여 무려 이천이넘는호상인으로 로방에는 전읍이총출동하야눈물을 흘리는중 동일오후여듧시무사히 그선영하에 하관하얏다한다

龍仁覆面强盜 有力嫌疑者逮捕

【利川】작년십이월이십칠일오전 두시경에 룡인군긔흥면령덕리(龍仁郡器興面靈德里)김정식(金正植)의집에 복면한 괴한한명이 나타나서 날카라운칼을내두르며 주인을 위협하고현금삼류원을 강탈하야가지고 종적을감추어 범인일이잇섯다 이급보를 접한 당자경찰서에서는즉시범인수사에 착수하얏스나 그자최를 알길이업슴으로수원(水原)경찰서에 응원을청하야래 맹활동을 계속하야오든바 룡인저의 김형사는 지난일일수원군양감면오당리(楊甘面梧塘里)김윤만(金允萬)(二六)이란자를유력한혐의자로 체포하야다가 엄중히취조하는중이라고한다

卞氏無事釋放 證據不充分으로

【楊平】긔보=양평주조조합에부정한사건이잇다하야지난달이십팔일에 양평경찰서원이 양평군청에 출장하야 문서다수를압수하고 동조합서긔변택주(卞澤洲)씨를 안치하야취조중이라함은 긔보와갓거니와 그후취조한결과 확실한증거가 업서서 문서는 돌여보내고 전긔변씨는 삼십일일에 석방하엿다고한다

義州農民社 定期大會盛況

【義州】의주군농민사(義州農民社)에서는 제칠회정긔대회를 지난달이십삼일 오전십일시에 당지공회당내에서 개회하고 전군일백십일개동 농민사를 대표한 대의원일백팔십칠명의 출석으로 다음과가튼 임원선거와 결의사항이잇섯다한다

◇討議事項
一、社勢擴張의件
二、敎養運動의件
三、體育普及運動의件
四、經濟運動의件
五、三個年計劃促進의件

◇新任理事=金成玉 白渴鳳 白元奎 白世明 韓正浩 洪鍾麟 崔寬世 趙鳳祥 許元衡 李永燮 宋世容 崔洪裕 白時彦 崔錫仁 白文學 李元浩 韓鳳三 高景煜 朴成傑 崔正國 朴奎傑 監査=金子一 朴鳳杰 崔犀

記者定總延期

【豐川】황해도풍천긔자단에서는정긔총회를오는칠일오후이시삼십분에 당시 공립보통학교 남부강당에서개최하기로 예정일을 변경하엿다한다

京東記者團 臨時總會召集

【京東記者團】경동긔자단에서는 오는십일일 오전십일시에 단사무실에서 림시총회를 개최하기로되엿는데 각지에잇는 집행위원들은 물론이오 단원들도 각지방특수사정보고재료를취집하여가지고참석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虛僞强盜告發 拘留處分當해

【全州】지난이일오전두시경에 전주상생정(相生町)이백이번지에서 채소장사하는 중국인포문택(浦文澤)(三二)의집에중국인복색을한수명의복면강도가침입하야 흉긔로 위협하고현금십원을 강탈도주하엿다 함으로급보를 접한전주 경찰서에서는비상소집하야형사대가현장에급행수사한바소위피해자의행동이매우수상함으로사실을엄중조사한결과 허위고발임이 판명되여구류(拘留)이십구일에처하엿다는데 허위고발한 원인은포문택이가일월일일에 자긔 경작지에서심원을 지불하고 남은돈이십삼전을 가지고 모주막에가서 다주을 피히먹고 취하야정신이업시지불한돈을 강도에게 빼앗긴것으로 그른생각되야 그런허위신고를하게된것이라한다

酷寒에犧牲! 凍死者續出!

一等路上에 中等男凍死屍

【南川】상읍발남천과평산사이의삼산리(三山里)일등도로에 서장녀동사체가발견되엿다 조사한바에의하면 그는본적은금천에두고 현재신막천에서 지물상을하고잇는 손종선(孫宗善)(四四)으로서 재긔부찬의회감으로 집에갓다가 남천시일이 련박함으로 장남을대아라고치우를 무릅스고 남천을향하야 도라오든중에 그만그와가티동사하고만것이라고 한다

養鷄場內에서 老人乞人凍死

【安邊】지난일월삼일밤에 안변군학성면홍문리양계장내(安邊郡鶴城面虹門里養鷄場內)에 유필수(劉必秀)란로인걸인한명이 사망하엿는데(年齡未詳)소관경찰서에서는 공의 황상언씨로하여금진찰케한결과 동사(凍死)로판명되엿다한다

身分未詳한殭屍 明禮里洞口에

【松禾】사일 송화군련방면 명례리(松禾郡蓮芳面明禮里)동구에서추정년령사십오세가량되는 남자의 동사체가발견되엿다 즉시 소관주재소에서 림검한결과 그다지남루치 안은광목상하의와광목주의를입은것으로보아 걸인이 아닌것은 확실하나 소지품이 하나도 업슴으로 신원을 도모지알수업서서 동주재소에서는 림시로 백화리공동묘지에가매장하엿다한다

地方人事

▲成元德氏(金川郵便所長) 新任人事次去二十六日本社金川支局來訪

▲韓相衡氏長男昌熙君과徐性鎬氏長女吉順孃의結婚式을來一月九日鴻山幼稚園에서李春元牧師의主禮로擧行

懸賞當選小說 暴風雨지난後【七】

李巴村作 熊超畫

편지(4)

점심이 다되엿스니 잠깐나와달라는 경보어머니의소리가 들렷다。

정순의 나가는모양을보든강박사의 시선은 도라와서 방바닥에노혀잇는 편지우에떠러젓다。

『저것이 무슨편지길래?』

하는 호기심이 밧삭음으자 그의 가슴속에서는 급한 숨소리가이러낫다。

강박사는 빨리 편지를집어서 것봉을 입으로 훡 불고 그속에잇는편지를 깜싹가티끄내엿다。 그러면서도 시선은편듯편듯 문쪽에갓다왓다하엿다 컨부는 보지못하드래도 편지의골자만이라도 알어보려는것이다。 겻봉에 발신인일홈업는것이 더욱 호기심을끄럿다。

밧게나가든정순은 갑작이편지생각이낫는지 별안간 문을열고들여왓다。

정순이가들어오는것을 보고 강박사는 허둥허둥하다가 봉투속에서끄낸편지를 미처 집어너흘새도업시 손에들고안즌채 우둑허니 정순을처다보앗다。

정순은 편지를들고 엇절줄몰으는 강박사를바라보자 얼골이 별안간 폭풍을 맛난것과가티 푸르락 푸르락하엿다

강박사는 집엇든편지를 다시땅에노앗다 물론 봉투속에다사집어너치도못햇다。그는편지를집을때로부터 다시노코저편쪽으로물러안출때까지 확실히 저신흠일흔듯햇다。엇더케된영문인지 도모지 갈피를잡을수가업섯다。이런때에 정순이압헤서 자기의태도를엇더케정햇스면조흘런지몰랏든것이다 벽밋헤 쭈그리고안진 자긔의태도가 한업시 처참한듯햇다。제일 문제되는것이 자긔의 두손을처치하기다。이마에대여야조흘런지 팔장을껴야조흘런지 양복저고리나입엇드라면 주머니속에 쿡 찌르고안젓겟지만 임이버서걸은 양복저고리를 다시네려서입기도무엇하엿다。

이런때에 가장적당한 것은담배를 뗌뗌피우고 안저잇는것이지만 본래 정순이가 장로의딸이요 또 예수교의교원으로잇는까닭에 담배를 시려할줄로알고 미리부터올때에 가지고오지안엇든것이다。

정순은 한참섯다가 나는듯이돌어와서 편지를집어헐면서

『남의 편지를 함부로보네』

하엿다。

『실례햇는데요!』

강박사 어느구멍으로 나왓는지 자기도 모르게 적은소리를내엿다。

『그러케 궁금하세요?』

하면서 정순은 호호우섯다。

『너무 흥미잇게보시길래!』

『흥미여?·소설읽는줄 아신게구!』

『그러케 말슴하신다면!』

강박사는 무슨 구멍이래도 잇다면 당장빠저 나갈 생각밧게업섯다。

『내 아리켜드릴까요? 겻봉에이름이업스니 누구의편진줄아실라구? 이이나즈케(약혼한사람)한테서 왓서요!』

정순은 입을실룩거린다。

『네? 그래요 텬구나 실례햇슴니다』

강박사는 얼골이빨개젓다。

『누구신가요?』

『…………』

강박사는 물어보고는 아차하고 후회하엿다

『누구신가요?·그건웨요?』

『약혼한남자예요 앗가이야기햇지요?』

『안이 일홈이?』

『그양반 몹시 치근치근하시군!일홈까지알고 십허요? 가르켜드릴까요!자 고히경씨입니다 놉흘高人자 밝을熙人자공경敬人자예요 그러구 서울게시지요 자 이만하면 하실만한조사는 다됏지요?』

정순은 방문을획열어제치고나가버렷다。

이가 나간것만이다행하엿다。

강박사는 정순그는 발이저려서 비틀비틀하면서 양복저고리를내려입고모자를집어들고밧그로나갓다。

뒤도안돌아다보고 껑충껑충뛰여나갓다。

『더럽다!』

하고 누가 침뱉는것갓기도하여서 등이확근확근하엿다。

배끕흔생각도 어듸로도망가버리고말엇다。

今日의라듸오

一月七日(日曜) 第二放送 (波長四九二米)

◇午後〇時五〇分 俗謠 金南鐵
一、時調
二、자름
三、遊山歌
四、小春香歌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童話 成俊德

◇同六時二五分 孝子의秘密

新春講演(七) 新年과修養 尹達鎔

◇同七時三〇分 俗曲
一、길念佛
二、방아타령
三、楊山道
四、漢江水打鈴
五、山念佛
六、京아리랑
七、密陽아리랑
八、늴니리아
洋琴 崔壽成 奚琴 池龍九 細笛 高敬德

◇同八時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傳 廣寒樓
景槪 丁正烈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行軍樂
二、乾坤歌
三、時調
大笒 長鼓 吳柳色 李山玉 金永根 金一宇

◇同九時 獨唱과피아노獨奏
一、바리돈獨唱、主는나의빗 …엘릿쎈作曲
二、피아노獨奏 멜로듸F調 …루―빈슈타인作曲
三、바리돈獨唱 예수는善한牧者…라우드作曲
四、롱獨奏 가、내主갓가히…메이슨作曲 나、하날닷는길…스콧트作曲
五、獨唱 가、完全한祈禱…스텝슨作曲 나、棕櫚…포―레作曲
獨唱과롱獨奏W·J앤더슨 피아노獨奏 서―리·앤더슨孃

第一放送 (波長三三三米)

◇午後一時二〇分 童謠
一、燈籠…松澤茂作詞
二、校舍の日暮…同上
三、雪が降る…同上
四、田舍の停車場…同上
五、牛車にいれて…同上
咸北鏡城高等普通學校
作曲並ピアノ伴奏 獨唱 朴韓奎 崔應來

◇同 二時二〇分 (東) ラグビー試合實況 明大對京大ラグビー戰―明治神宮外苑競技場より中繼―

◇同 七時三〇分 (東) 落語 一月あがり 三遊亭金馬

◇同八時〇分 (東) 獨唱とピアノ
一、獨唱 (イ)汝の歩むところ…ヘンデル作曲 (ロ)愛のよろこび…マルティーニ作曲
二、ピアノ (イ)奏鳴曲、二長調第一樂章……モーツアルト作曲 (ロ)パイジエロの主題による六つの變奏曲…ベートーヴェン作曲 (ハ)華やかなる回旋曲……ウェーバー作曲
三、獨唱 歌劇『アイダ』わが祖國……ヴェルディ作曲
獨唱 紺越高美子 ピアノ獨奏及伴奏 小巻千代

謹賀新年

嶺美 — 大楡嶺山株式會社荷物專屬取扱 博川泰川間旅客荷物自動車運輸取扱 京義線嶺美驛前 英昌運送店 嶺美荷物自動車部 主 鄭英
京義線嶺美驛前 西北事務所 警察官醫者專門口閑 太宗社 社主 金長伊 振替京城一七五六一番
株式會社 太崇社發起人會 振替京城七七四九番 電話五番 私書函五號
京義線嶺美驛前 玄米製造 委託賣買 三成商會 金泰善
京義線嶺美驛前 壽長醫院 院長 崔龍善
京義線嶺美驛前 亞鉛引平浪板洋釘針 金類家具裝飾品 種農具油類塗料硝子各 消石灰スサノリセメント建築請負 三和商會金物部 主 文應八 電略(ミワ)
京義線嶺美驛前 綿綢布木 和洋雜貨商 大成商會
京義線嶺美驛前 丸金運送部 米穀商 金昌玉 電話四番
嶺美洋靴店
京義線嶺美驛前 穀物貿易 玄米調製 元興商會嶺美支店 本店新安州 電略ケンヌケ 電話八番
京義線嶺美驛前 金昌立
友利麵店
長老 文晨奎

鴻山 — 外山面萬壽里 外山釀造場 主 張悳淳
鴻山邑 鴻春酒造場 主任 崔憲模
鴻山邑 中樞院參議 金鍾翕
鴻山邑忠南興産株式會社 專務取締役 金鍈洙
鴻山邑 鴻印洋服店 主任 崔鍾燮
南面金川里 金致一
玉山面秀岩里 新興會長 橫尾啓一
鴻山面南村里 鴻山金鑛事務所 鑛主 黃南圭
鴻山面事務所 職員一同
外山面萬壽里 主持 李錫九
外山面萬壽里 外山金鑛事務所 鑛主 張基琇 邊永秀
扶餘邑 前面長 金相培

泗川 — 外山面萬壽里 組頭 尹鍾元
九龍面東芳里 有志 朴鍾泰
内山面溫岩里 韓昌熙
鴻山面南村里 海成洋服店 主任 李海成
泗川酒造株式會社 社長 崔演武
泗川郡正東面 面長 崔道卿 外職員一同
泗川郡龍見面職員一同
泗川郡泗川 有志 崔演國
泗川郡泗川邑内 鄭鎭植
泗川郡柩洞面舊湖里 金星煥
泗川郡邑内 朴鏞洛
泗川郡 泗川面職員一同
泗川郡 朝鮮酒造組合
泗川郡正東面 崔普卿
泗川郡萬湖里 黃錫五
泗川郡泗南面草田里 姜東鎭
泗川郡邑内 金太鏞
泗川郡泗川面 朴南遂
泗川郡正東面獐山 朴震根
泗川郡柩洞面萬湖里 崔又完
泗川郡泗南面 柳布植
泗川郡龍見面松旨里 文正洪
泗川郡龍見面松旨里 柳道仙
泗川郡龍見面松旨里 姜再誦
泗川郡龍見面新律里 姜泰烈
泗川郡泗南面草田里 柳文植

球場 — 鴻山面南村里 中央理髮館 高海中
鴻山面南村里 米穀商 朴孝基
鴻山面北村里 米穀商 朴禮基
内山面公普校 訓導 任敏宰
滿浦線球場驛前 二成木工所 全京九
滿浦線球場驛前 ㊁荷物運送店
球場驛前 德源樓 主 宋在弘 藝妓 尹月心 宋丹心 金花心 吳弄月 金瓊波
滿浦線球場驛前 無名氏
滿浦線球場驛前 張贊俊
滿浦線球場驛前 康鎭寬
滿浦線球場驛前 壽昌藥房 李處奎
滿浦線球場驛前 朝日洋服店 金世得
滿浦線球場驛前 三益社
滿浦線球場驛前 龍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朝鮮運送株式會社 球場出張所
滿浦線球場驛前 ㊀三成運送部

滿浦線球場驛前 錬龍旅館 朴
滿浦線球場驛前 寧邊農民共生組合球場支部 李雲伯
滿浦線球場驛前 球場金融組合
滿浦線球場驛前 公醫 鄭秉淵
滿浦線球場驛前 龍田藥房 金八
滿浦線球場驛前 平壤館 鄭仙花 文花仙 鄭仙姬 金玉仙
滿浦線球場驛前 明月館 李山紅 安蓮花
新高山 — 安邊郡新高山驛前 金鎭寬
安邊郡新高山驛前 太陽寫眞館 主 金永善
安邊郡新高山驛前 醫生 張文謙
安邊郡新高山驛前 安璽植
德亭 — 楊州郡檜泉面 面長 鄭駿和
京元線德亭驛前 德亭釀造場 主 李昌善

新手形、新小切手【上】
◇…注意할要點

지난十二月二十九日附로手形法、小切手法改正實施에對한笠井法務局長의 談을紹介한바어니와 이改正法은今年一月一日로부터 實施키로되엿스나그동안(一月三日까지)銀行會社市場等이休日이엇든까닭에事實上으로는一月四日로부터 實施가된것이며 따라서朝鮮의民事令이改正되엿것이다 그런데 市內의各銀行으로부터去來處에向하야 新手形과新小切手에關한 注意點을列擧하야서 各各通知를하엿다이것을紹介하면다음과갓다

爲替手形

▲振出

一、手形文句中에『爲替手形』이라는文字를 包含하야만될일(第一條第一號) 從來와가티 標題에爲替手形이라고 記載하면 足하다는말도잇스나 異論도잇슴으로『此爲替手形引換에御支拂云云』이라고쓰는것이조켓다

二、支拂地뿐만이아니라 振出地를記載함도 必要케되엿다(第一條第七號) 支拂地의境遇와가티 振出地의 記載가업드래도 振出人의 住所가써잇스면 그것을振出地로看做한다(第二條第四項)

三、一覽拂과 一覽後定期拂手形에限하야 이것을利付手形으로할수잇스나 그利率은반드시手形面에 記載하여야만된다(第五條)

四、『拒絶證書不要』『拒絶證書作成免除』等의文句에는그엽허나또는 그아래반드시署名하야그意思를 밝혀야만되며 그러나署名은記名捺印으로할수잇슴은 勿論이다 이點은從來와매우 달음으로特히注意를要한다(第四六條)

五、手形金額이 文字와數字를記載하야 兩金額에相違가잇슬境遇에는 文字로써記載한金額이手形金額으로된다(第六條第一項)

▲裏書

一、裏書의年月日은 반드시必要가업게되엿다그러나 日附가잇스면 手形授受의關係가明白케되고 또日附가업는때는支拂拒絶證書 作成期間經過後에 裏書한境遇라도償還請求를바들念慮가 잇슴으로記載함이조타

二、裏書人이『拒絶證書不要』等의文句를 記載한境遇라도반드시이에署名또는 記名捺印하게됨은 振出人의境遇와全然同樣이다

▲引受

引受拒絶도手形上[illegible] 拒絶의 境遇에는 오직支拂[illegible]의 擔保請求를할수잇슬뿐이다(商法第四七四條)그러나 持人은前者에對하야償還請求가되나(商法第四八六條)引受

新法에依한즉 支拂拒絶의境遇에는勿論 引受拒絶의境遇에는(滿期前이라도)所持人은 前者에對하야 償還請求가될수잇다 이點은 兩手形法이 顯著히相異한것의一이다 그럼으로

一、引受에는一日의 猶豫期間이 認定되엿슴으로 支拂人은 引受키爲한 呈示를受한 翌日(取引日)에 再次의呈示를하도록請求할수잇게되엿다(第二四條第一項)

二、振出人은 手形에一定한期間을定하고 또는所定이업시 引受키爲한 呈示를할旨를 記載하고 또는이것을禁止할旨를 記載하여둘수잇다(第二二條)

▲支拂

一、手形交換所의 手形呈示는 小切手와가티 支拂키爲한呈示인 效力이잇게되엿다(第三八條第二項)

▲遡求

一、引受拒絶에依한遡求는滿期前의 遡求임으로 引受拒絶의日로부터 滿期까지의利息을 手形額에서 떼인것이償還金額이된다(第四八條第二項)

二、支拂拒絶證書 作成期間은 支拂日과 다음의二取引日이나(第四四條第三項)遡求의通知는

(가) 所持人은拒絶證書作成의日과 이다음의四取引日內에 自己의裏書人과 振出人에對하야 그通知를하고

(나) 各裏書人은通知를受한日로부터二取引日內에 다시自己의前者에對하야그通知를하여야만된다(第四五條)

三、引受拒絶證書가잇스면 다시支拂키爲하야呈示할必要도업고 따라서支拂拒絶證書를 作成치안트래도前者에遡求가된다(第四四條第四項)

四、振出人이『拒絶證書不要』라고記載한境遇에는所持人은拒絶證書가업드래도一切의署名者에對하야償還請求를할수잇다 그러나裏書人이 이것을記載한境遇에는 그裏書人에對하여만償還請求가될수잇다(第四六條第三項)

▲時效

一、裏書人의以外의裏書人과振出人에對한手形上의請求權은六個月로時效에걸린다(第七〇條第三項)

▲寫眞=新法에依한爲替手形의樣式

農業再融通其他 米國大公債政策
루즈벨트大統領이提案을明言
不遠四十億弗發行

【聯合四日華盛頓發】 四日의豫算敎書中압으로 四年間에 百億弗의 新公債發行計劃을 公表한루즈벨트大統領은 다시五日記者團과의定例會見이잇서 來週의議會에對하야 農業再融通債券二十億弗의 元金補償을 提案할意向이잇슴을 밝히엿다 右農業再融通債券의 政府補償은 結局事實上同債券을政府債券과同一케하는것이다 그러고이外에따로 二十億弗의內國債務整理債券의發行이 計劃되다고말하며루즈벨트大統領의 斷乎한公債發行計劃은 各方面의注目을끌은다

루大統領 通貨安定意向
時期는今年夏末頃

【華盛頓四日發】 루스벨트大統領은議會敎書中에現在의通貨政策을續行할旨를暗示하얏는데 消息通方面에서는大統領으로서도언제까지通貨를現在의不安狀態에放棄할수업고 언제던지適當한時期에通貨安定에進出할것으로그時期는議會가終了된後卽夏末頃이리라고觀測한다

東銀商銀支店 新設의內認可

京城內普通銀行의地方進出이實施되야이미三年間의各行新支店業績을보면豫想以上의好成績을보이고잇다 일로因하야各銀行은모다地方進出을企劃하야 總督府에이認可를申請中인데 東一의永登浦支店新設은漢勝總督府當局의內認可가잇섯슴으로兩銀行은모다月末에열릴定期株主總會에支店新設의件을附議決定한뒤二月初에는開業키로內定하엿다고한다

京城勞銀保勢

【朝鮮銀行調査】 十二月中指數 京城府內 勞銀平均指數는前月과가티一四九、四六으로前年同月보다 一、九三의昂騰이엇다

米日爲替少弱

【聯合六日東京發】 五日의米日爲替는前日보다 十二仙低인 三十一弗二로되얏다

▲東京爲替(六日)

對米 賣 三十弗八分三 買 三十一弗
對英 賣 一志二片八分 買 一志二片

▲大阪爲替(六日)

對米 賣 三十弗八分五 買 三十一弗
對英 賣 一志二片八分 買 一志二片

市中金價暴騰 十圓七十錢買

前日騰反落步調로弱하얏든市中金價는 年初부터反撥되어六日朝에는 十圓七十五錢賣 十圓七十錢買로 前日에比하야三十錢가량暴騰되엇고 尙續騰傾向이다

商況(六日)

株式 無味保合

前場保合 初立會가至極平凡하더니 休日을지난今前場도來是新味가업서 全般的으로人氣가立치못하야東新은保合에 當地는保觀이고日產新舊가約二圓方上進되고 朝取新舊의少弱外에는諸株共히極少幅의往來에止하얏섯다

後場休會 後場은例休인데大阪氣配가 東新鍾新各二十錢低大新 日產不變이엇슴으로富籍引斷氣配는依然保合不變의無氣力이엇다

市勢前途難測

杉大한豫算에依한 通貨와信用膨脹에依하야 金利低下、各種事業增益等으로보면 株價는上昇이豫想되기도하나 今年度豫算은 孤立한日本으로서 無條件樂觀을不許할뿐아니라 日銀의 마켓트 오베레슌의 걱정과 海外財界의不安、國際關係의不安이 그대로越年한터이며 議會開會와共히 政局波瀾이豫想되는까닭에 金融緩慢이나低金利만내세우고 積極的으로買進할수업서 新春與頭부터 嚴戒를하며 今後에 나타날材料如何를 重視하고 自重하는터이오 今後强弱에對한 確乎한定見을세울수업시 全般的으로氣迷彷徨의域을不脫하고잇는모양이다

諸株事情區區

△東新 投機株로서의妙味가喪失되고 株界全般을『리-드』하던時代는나간만큼이株에對한一般의人氣가離散되엇고上進이어려울것갓고

△大新 大阪大新十三萬株의大取組가 目前의重荷로春高期待背馳로小口의嫌氣賣物이不絶할모양이며

△日產 東京市場에在籍株의買入이强하야 新舊共히好勢인데 一段高도豫想할수잇고

△鍾新 日印會商成立의好感이現實로 鍾新에크게나타나지는아니하얏스나 이好材料가 時外機에臨하야上進의後援이될것이오 特히日本有力株新規上場과 米株兼營在近의好感이 크게될것가트며

△朝新 朝取自體로는 何等悲觀할것이업고 低價에는買物이滿在한듯함으로 悲觀無用이 적지안어 深綿良好의期待가잇다

△拓新·東拓整理 滿洲方面積極活躍 爲替高에依한 外債利拂의負擔輕減等으로 割低視되는拓新은 買物續出되는實狀으로上進步調이다

今年强?弱?

그 九年의株式市場은 强?弱?그 動向이果如何?簡明히말하면所謂인푸레와 低金利는市場의支柱는될지언정 크게株界를活躍케할지는 疑問이오國際經濟의激化로日本品排擊의 火와共히 爲替高를걸치가지고 未曾有의經濟難局에 處케된것을 覺悟하여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對英 對米 對中國關係를主流로한눈에보이지안는非常時의不安을생각할때 今年은豫期치못하던衝動으로 波瀾이甚大할것을알고 善處하여야할것이오輕輕한强弱論을 愼立키가危險視되다

株界六感

× 株式界로서도 多事多端이豫想되는 1934年은初立會부터너무나平凡無力

× 屬觸氣分까지업서지고 입맛만다실뿐

× 初立會가東京東新이昨年大納會와同價 大阪大新이亦是同價 新이겨우 十錢高 아서라 너무甚하다고모찌아이는터니 今六日도同調

× 日印會商이成立되엇스나 다른株는 다고만두고라도鍾新가튼것은 적어도엔圓이나마 뛰어줄줄알엇더니 그것도헛일

× 高場主任艾君 六感子等을흑치면서 祝願키를『今年에큰市勢가잇슬터이니 今年에또 猝富될演數를놋치지말라』고

× 이말을그대로 이欄愛讀者諸君에게 歲拜대신祝願해두고 成功을빈다

今日財界 二十八日

米 (單位錢)	今後止	比前日
仁川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illegible]
㊂三等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在來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後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十錢)	今後止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貨)	[illegible]	[illegible]

金	
日銀(一瓦)	[illegible]
朝銀(一瓦)	[illegible]
鍾路(一匁)	[illegible]
本町(一匁)	[illegible]
米國産金價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三、九五	
一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一〇八、七〇	
佛貨四分利	一八一、三五	

期米 下澁 頑强

前場下澁 再昨前場阪地二十三圓七十三錢、十六錢止와 共히二十圓七十三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一休今朝에入하야 阪地初村二十三圓十錢인 六丁反落을據하고 二十圓六十五錢인八丁低로 場을始한後 阪地二十二圓九十九錢으로 續落함에作하야 五十九錢까지 下押하엿다가 結局阪止三圓○九錢의反高를入하야 六十八錢에返하고 阪止○七錢과 共히六十七錢에止場하다

後場保合 後場은二十圓六十七錢에同價始場後二節六十四錢으로 四節六十八錢에保合이고別欄가티止場하다

買上期待로 當地單獨頑强

新春與頭에落止獨步發會한當地先限은 發會價를最高로하고 多少軟味를 添하나 그러나容易히低價도 許하지안코 中途에서彷徨할뿐이다 要하면實米의情勢는 아즉도壓迫을 加하는만큼 又一段低落을告할形勢이나그러나 客年末에發表한一月十日의朝鮮米 五十萬石正租十萬石의買上을期待하는 買人氣가依然橫溢하야 東西兩地의 反落을受하고도 比較的硬味를 添하야 買上이完了되기까지强調를持續할것갓다 勿論買上으로하야 部分强硬할것은 商業으로보아 否認할수업스나此買上의市勢가一巡한後에는又復實勢成行의市勢가展開하고 말것임으로찰아리傍觀하다가『모도리』買의 方針을취하는것이得策가 아닐가한다

正米界는 買氣稍漸滋生

客年大納會를 境하면 昨年以來의正米의事情을 察하면 地方農村에는正租貯藏獎勵金의 豫算이八百萬圓內外에 止하엿슴에도不拘하고 地方官廳의 絶對獎勵로長期의 貯藏이 着着進行됨에 딸아越年하는 동안에 産地의 出廻가 多少잇기는 하엿스나 그다지 括目할餘地가업고 一方買上期待의 買氣가 依然潛在하고 兼하야 當地加藤精米所側으로서 精米의原料用으로 正米를買付하기 始作하야얼마間買氣를 助長한다 果然今後의 米界大勢가 如何히展開될지는 모르나 압흐로買上期日이臨迫하고兼하야傍觀的態度로잇든精米側의原料買付를보면 마치暴騰市勢의有無는斷言할수업스나 當分間正米共히 强硬할것만은事實이다

米豆餘話

◇新春與頭의場面은軟弱한듯하고도底堅味를含有하야容易히瓦落을不許

◇阪地는發會後約三十丁의反落을告하엿스되當地는約二十丁低落에不過

◇그러나春高豫想의場面이不伸不抑의鈍狀으로客年納會當時의保合圈內를離脫하지못하엿슴은今大勢의分岐를보지안코는作戰키難할모양

◇그런데압흐로 朝鮮米買上의强材가 걸처잇고 또加藤精米側이正米를 買付할을보면 賣安心하기도 亦難

◇그러나 그反面으로는大豐作의客年인만큼 實勢의壓力이隱然潛在한모양인즉 買方針을 確立하기도 亦困難

◇如何間今年의大勢는 統制法의威力과 實米의壓力이 對峙되어잇는만큼 큰 波瀾이업시終始할모양이니 定期筋의睡眠時代가到來

◇그러나今年米作의凶豐如何를딸아一大波瀾이 잇슬것이라고市中商談이區區二時代나기다릴수박게

各地正米

當市前場情報【大阪通信】 依然朝鮮米低로氣配하고堺米正米系中東側의持米系는 淸算에參하고 其他條式側浦邊門前側도 賣進하얏슴에對하야株式側別派岡山側神戶側이買向하얏다

京城弱含 産地의換金急으로繼續하야 賣物이旺盛함과期正米의軟弱으로氣配一、二十錢弱含인㊂三等二十圓五錢 四等十九圓九十五錢

仁川軟化 期米低로買氣衰함과가다야 日本注文은一段셕은一方 持米側이賣焦항으로 市況이軟弱에傾하야㊂三等二十圓五錢 四等十九圓七十五錢으로 十五錢低

釜山軟弱 出廻五千叺定期의漸低와産地의不味를移하야取引은 四千二十二叺으로比較的順調이엇스나 活氣가薄한商狀을呈하야 市勢는㊂三等二十圓五錢四等十九圓八十錢으로 十錢低唱이엇다

大邱不變 休日後의期米無活氣保合에依하야 賣買共히全혀氣乘치안어閑散이繼續되고不變인㊂三等十九圓八十錢四等十九圓四十錢

南浦下澁 産地는期米低로鈍感 下澁임으로低價突込은自重하고 休日前同様인 ㊀三等二十圓六十錢 四等二十圓四十錢唱

群山續落 出廻十二輛産地賣急으로氣弱하고 期米不勢와買力一齊闕로 氣配續落하야㊂三等二十圓三十錢 四等二十圓五錢으로十錢乃至五錢低

木浦低落 別段低價賣物을齎來치안으나 期米의落潮不息으로 人氣不勢하야㊂三等二十圓九十錢 四等二十圓六十錢으로十錢低落

朝鮮對外貿易
昨年輸出入增

【總督府調査】 昨年中朝鮮對外貿易은輸出五千二百七十七萬三千圓으로前年에比하야二千五十六萬三千圓增 輸入은六千四百三十六萬八千圓으로前年에比하야二百六十八萬二千圓의 增加인데入超額은千百五十九萬四千圓으로 前年보다 二千八十八萬千圓의減이다

△輸出

品名	輸出額	(仕向)	比前年增加額
硫安肥料	三、七九九	(米獨及布哇向)	三、七八二
木材	五、〇五九	(鴨綠江材의滿洲向)	[illegible]
鐵	三、〇六一	(日本產의滿洲向)	[illegible]
鐵道車輛	一、八四六	(日本各車輛會社製造品의滿洲向)	一、八四六
米	二、〇二三	(滿洲及靑島向)	一、四七三
세멘트	一、二〇九	(朝鮮產品及日本產品의滿洲向)	一、〇四〇
果實	一、六九七	(林檎의滿洲中國及南洋向)	九三三
水產物	三、〇七七	(滿洲及中國向)	八三一
葉煙草	八一三	(埃及滿洲中國及暹羅向)	六三一
地下足袋	一、四二二	(日本及朝鮮產品의滿洲向)	四一五
燕麥	二八三	(北朝鮮產品의滿洲向)	二六八
小麥粉	六四五	(朝鮮產品의滿洲向)	二六六

▲輸入

品名	輸入額	(仕向)	比前年增加額
柞蠶絲	[illegible]	(滿洲及關東州)	[illegible]
石炭	[illegible]	(滿洲及撫順)	[illegible]
砂糖	[illegible]	(爪哇原料糖)	[illegible]
豆粕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印棉及中國棉)	[illegible]
製紙用펄프	[illegible]	(安東鴨綠江製紙會社)	[illegible]
天日鹽	[illegible]		[illegible]
揮發油	[illegible]	(製品의日本向)	[illegible]
原油	[illegible]		[illegible]
琺瑯鐵器	三三五	(朝鮮產品의南洋及滿洲向)	二六四

十二月中輸出入狀況

【總督府發表】 十二月中의朝鮮對外貿易은 輸出 五百五十一萬九千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百八十四萬千圓增 輸入은 六百三十六萬七千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五十七萬七千圓의增加이나 入超는 八十四萬八千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百二十七萬三千圓의減이다

區別	輸出	輸入
昭和八年十二月中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同月中	[illegible]	[illegible]
今年增加	[illegible]	[illegible]
今年同上步合	[illegible]	[illegible]

▲輸出

	輸出	輸入
輸出入計	五、五一九	六、三六七
入超		八四八

【備考】 出入重要品의前年同月에比하야 增加한것이 特히顯著한것은 아래와갓다(以下單位千圓)

▲輸出品

輸出品名	輸出額	(仕向)	比前年增加額
硫安肥料	九五五	(獨逸向)	九五五
鐵	[illegible]	(日本產品의滿洲向)	[illegible]
果實	[illegible]	(日本產品의滿洲向)	[illegible]
綿織物	[illegible]	(滿洲及朝鮮產品의中國向)	[illegible]
葉煙草	[illegible]	(埃及及中國向)	[illegible]
米	[illegible]	(滿洲及中國向)	[illegible]
水產物	[illegible]	(滿洲向)	[illegible]
세멘트	[illegible]	(朝鮮產品의滿洲向)	[illegible]

▲輸入品

輸入品名	輸入額	(仕向)	比前年增加額
棉花	[illegible]	(印棉及中國棉)	[illegible]
砂糖	[illegible]	(爪哇原料糖)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礦油	[illegible]		[illegible]
機械類	[illegible]		[illegible]
天日鹽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illegible]

金融 六日

海外經濟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京城手形交換 / 東京金利 [tables illegible]

大阪金利 / 對外爲替 / 金價(一匁) / 米穀 六日 京城正米 / 仁川正米 / 大阪正米標準價格 / 京城雜穀 / 仁川大豆 [tables illegible]

商品 六日

京城綿絲布市勢 / 京城人絹時勢 / 日本麥粉時勢 / 大豆期麥 / 豆油時勢 / 鐵/油冲値 / 鞍山銑鐵 / 滿洲商況 / 大連特產時勢 [tables illegible]

株式 六日

朝取短期 / 朝取短期賣買高 / 算定代引日步 / 東京現株 / 東京短期東新 / 大阪短期 / 大阪長期 / 東京短期取組 [tables illegible]

期米 六日

朝取期米 / 朝鮮內各地期米 (大邱 群山 木浦 釜山 鎭南浦) / 大阪期米 / 大阪期米取組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tables illegible]

商品 六日

大阪棉絲 / 大阪棉花 / 紐育綿花 / 各地人絹 / 橫濱生絲 / 神戶生絲 / 大阪砂糖 / 東京砂糖 / 海外砂糖 [tables illegible]

謹賀新年

南部

京城市外西氷庫驛前 永豊精米所 柳雄秀

舟橋町一八二 趙斗洛

京城吉野町一丁目 吉野屋本店

京城櫻井町一丁目八七 河野繁

京城西大門町一丁目八四 萬花堂 金綾元

京城古市町十四 李相根

京城東大門市場 成聖煥

三坂通三七六 太潤和

京城三坂通三二 三坂秀美學院 金東圭

京城市外西氷庫 西氷庫普通學校 職員一同

京城市外西氷庫 丁應山

崇仁面新設里一八六 仁昌精米所 成命基

京城堅志洞八〇 乘合自働車部 漢陽

靈武

咸鏡線靈武驛前 靈武釀造場

咸鏡線靈武驛前 靈濟醫院 陳金龍

⑪取引店 靈武郵便所長 靈武商工通運社

靈武 陳炯瀲

靈武 李榮禧

靈武 龍成旅館 朴周敎

靈武 金庚允

洪原郡前津 春山醫院 高再灼

洪原郡前津 日用雜貨 高鉉琪

咸南新浦六坮 金珍基商店 海陸物產委託賣買 (電略ㄱㅈ八(チン))

咸南新浦六坮 海陸物產貿易委托明太子製造問屋 金達允商店

咸南新浦六坮 三元商會 海陸物產委託賣買並明太子製造問屋 金道植 邊時浩

咸南新浦六坮西里 海產業 加藤彌一郎

咸南新浦六坮西里 海陸物產貿易委托 崔南鴻商店

咸南新浦六坮西里 海陸物產貿易明太子製造業 李柱元

咸南新浦六坮西里 日用百貨商 金東植商店

咸南新浦六坮西市 海產物商 姜榮軫

咸南新浦六坮西市 海產物商 李學年

咸南新浦六坮港 日用百貨 南彪商店

咸南靈武驛前 朝鮮日報社支局 支局長 康鳳善 記者 吳壽鳳